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석사학위 논문

낙죽 기법을 응용한 문화상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한 준 혁

낙죽 기법을 응용한 문화상품 연구

A Study on the Cultural Products Applied with Nakjuk
Technique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한 준 혁

낙죽 기법을 응용한 문화상품 연구

지도교수 한 선 주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한 준 혁

한준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 규 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선 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욱 (인)

201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0
ABSTRACT.....	0
제 1장 서 론.....	i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i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v
제 2장 이론적 배경.....	1
제1절 문화상품의 배경.....	1
1. 문화상품의 정의.....	1
2. 문화상품의 특성.....	2
제2절 낙죽의 일반적 고찰.....	3
1. 문양으로부터의 낙죽의 배경.....	3
2. 낙죽 대나무의 물성.....	8
3. 낙죽의 이해.....	14
4. 낙죽의 역사.....	25
제3절 낙죽 도구에 대한 고찰.....	29
1. 전통 인두류.....	29
2. 현대인두, Burning 펜.....	32
3. 화로.....	34
4. 다듬 칼과 낙죽 준비물품.....	36
제4절 낙죽 문양의 현대 기법 고찰.....	39
1. 현대 낙화 버닝.....	39
2. 버닝 상품 예시.....	41
3. 레이저 마킹(Laser Marking)의 기법.....	43
4. 레이저 마킹 상품 예시.....	44
제 3장 죽장(竹裝) 기법의 사례 분석.....	45

제1절 국내 장인 사례 연구.....	45
1. 국내장인.....	45
2. 본 논문의 연구자의 작품 연구	57
제 4장 결론.....	69
참 고 문 헌.....	71

표 목 차

<표 1> 담양지역 죽세 공예품 고찰.....	11
<표 2> 낙죽의 기본 무늬.....	17
<표 3> 낙죽 작품	20
<표 4-1> 전통 인두 종류	28
<표 4-2> 전통 인두 종류	29
<표 5> 현대 인두 종류.....	31
<표 6> 전통 화로와 전기 화로.....	33
<표 7> 다듬기 칼.....	35
<표 8> 기타 도구.....	36

그림 목 차

<그림 1> 상형문자 비 우 雨	4
<그림 2> 상형문자 달 월 月	4
<그림 3> 낙죽장도 사인검	6
<그림 4> 왕대	13
<그림 5> 솜대	13
<그림 6> 맹종	13
<그림 7> 시누대	13
<그림 8> 솟 불	15
<그림 9> 화로 이용	15
<그림 10> 대나무 채취	21
<그림 11> 대나무 삶기	21
<그림 12> 진 빼기	21
<그림 13> 건조	21
<그림 14> 보관, 대나무선별	21
<그림 15> 낙죽 자세잡기	21
<그림 16> 온도 확인	21
<그림 17> 인두 재털기	21
<그림 18> 낙죽 과정	21
<그림 19> 우드버닝 작업과정	38
<그림 20> 수납장 버닝	39
<그림 21> 수납장 버닝	39
<그림 22> 수납장 버닝	39
<그림 23> 수납장 버닝	39
<그림 24> 시계 버닝	39
<그림 25> 팬던트 버닝	39
<그림 26> 팬 버닝	40
<그림 27> 기타 버닝	40

<그림 28> C02 레이저조각기	41
<그림 29> 웨딩 레이저 마킹	42
<그림 30> 호랑이 상표 레이저	42
<그림 31> 명함 레이저	42
<그림 32> 국양문 장인	43
<그림 33> 낙죽 참빗 등대	43
<그림 34> 낙죽 작품	44
<그림 35> 김기찬 장인	45
<그림 36> 낙죽 붓	45
<그림 37> 심정 필정 낙죽 붓	46
<그림 38> 낙죽 문진	46
<그림 39> 낙죽 비녀	47
<그림 40> 한상봉 장인	48
<그림 41> 낙죽장도 2011	48
<그림 42> 낙죽장도 故 한병문 작	48
<그림 43> 용 문양 낙죽 좌장검	49
<그림 44> 낙죽장도 사인검	49
<그림 45> 낙죽장도	50
<그림 46> 이형진 장인	51
<그림 47> 낙죽 합죽선	51
<그림 48> 낙죽 펜	52
<그림 49> 조운창 장인	53
<그림 50> 낙죽 화살통	53
<그림 51> 낙죽 화살통-1	54

작 품 목 차

< 작품 1 > 스탠드 조명등1.....	56
< 작품 1-1 > 스탠드 조명등1 세부적.....	57
< 작품 2 > 스탠드 조명등2.....	58
< 작품 2-1 > 스탠드 조명등2 세부적.....	59
< 작품 3 > 스탠드 조명등3.....	60
< 작품 3-1 > 스탠드 조명등3 세부적.....	61
< 작품 4 > 연필케이스.....	62
< 작품 5 > 편편한 어울림.....	63
< 작품 5-1 > 편편한 어울림 세부적.....	64
< 작품 6 > 낙죽 페이퍼 나이프.....	65
< 작품 6-1 > 낙죽 페이퍼 나이프 세부적.....	66

국 문 초 록

21세기에 들어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문명은 더 빠르게 발달하였고, 이러한 발달은 현실을 넘어선 가상의 현실까지 구축하며 인류에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된 생활을 누리게 하였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통 기술들은 진보된 현대 기술에 경쟁할 체제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외면 받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술을 중요시 하는 전통 공예 분야의 경우, 수작업의 한계성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전통 기술이 가진 독창적인 감성을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하게 세분화 할 수 있는 공예 분야에서 낙죽 기법이 어떻게 현대화된 시대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전통 공예 분야의 기법중 하나인 낙죽을 통해 문양을 표현해왔다. 낙죽이라 함은 대나무에 도구를 통해 열을 가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낙죽을 어느 시기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조선시대의 왕실 물품을 기록한 문헌을 통해 낙죽이 조선시대에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실의 물품에 낙죽 기법이 있었던 만큼 우리 민족이 낙죽을 애용해 왔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죽이란 기법은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어 왔지만 숙련도가 많이 필요할뿐더러 수작업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공산품에 밀려져 나갔다. 이로 인해 수작업으로 생산되어지는 낙죽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잊혀 갔다. 잊히는 과정 속에 전통을 지키며 유지하려는 문화재청, 문화 유산원 등과 같은 전통을 이어가려는 정부 또는 후계자들이 낙죽을 포함한 전통적인 기법들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며 전 세계의 공예인들이 전통 공예를 잊지 않고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노력을 발판 삼아 전통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전통적인 문화의 산물들은 경제적 의미보다 교양의 상징으로 여겨져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물질적 풍요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었고, 교양의 상징이던 전통 문화 상품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에만 머물러 있던 낙죽 또한 과거 왕실, 귀족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용하였던 것만큼 현대에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과 용도로 그 가치

가 새롭게 인정받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낙죽장도장 이수자로 장도에 국한되지 않고 낙죽의 현대적인 패턴에 관심을 가지며 낙죽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낙죽을 활용한 상품은 전통기법의 한 분야로서 계승하고 유지하려는 차원이 아닌 과거에도 사용하였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사용될 수 있는 미래 디자인적 요소로서 가능성 높은 문화상품이라 하겠다. 여기에 친환경적인 소재로 다시금 각광받고 있는 대나무는 현재 자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빠른 성장과 높은 경제적 이익 창출이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나무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낙죽기법을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을 미래의 디자인으로 인식하며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점에서 과거를 훑아보고 어떻게 현대의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낙죽을 알아보고 낙죽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할 때 전통 방식을 재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 Life Style에 있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전제품과 더불어 다른 제품에도 응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낙죽 연구를 통해 작품 연구를 했고, 낙죽이 전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낙죽 기법을 현대 제품과 결합하여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죽 기법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음에 폭넓게 수용하고 예술적 측면으로서 다가가는 것만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된다.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Products Applied with Nakjuk Technique

Han, jun-hyuck

Advisor : Prof. Han, Sun-Ju,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civilization was developed faster, and this development led to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which led to the evolution of mankind beyond the past. In this rapidly changing reality, traditional techniques are being ignored because there are no plans to compete in advanced modern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field of traditional crafts, where technology is important, it remains at the threshold of tradition with the limitation of craftsmanship. But for this reason, one can not easily throw away the original sensibility of traditional technology. We seek to find out how nakjuk techniques can be aligned with modern techniques in a variety of technological fields.

Our people have expressed their designs through nakjuk, one of the techniques of traditional crafts. Nakjuk is a word that expresses something by putting heat into a bamboo tre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precise literature on the origin of the period, it can be found that nakjuk was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Nakjuk techniques was applied on the royal property . It means that our people patronized nakjuk.

Nakjuk techniques have been widely used ,but it is required proficiency and manual labor. So it was pushed out of industrial production that was easily processed. Nakjuk produced by manual labor was naturally moved away, Government or successors lik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ho try to preserve tradition in their forgotten processes have inherited

traditional techniques including nakjuk.

That means the people endeavor to capitalize on traditional craft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a movement to develop tradition as a cultural product began to emerge. Traditional cultural products have been regarded as refinement symbols rather than economic significance and have not appreciated their values. Recently, however, due to material affluence, the quality of life has increased. And traditional cultural goods, which were cultural symbols, began to appreciate their values.

In addition, nakjuk, which stayed in the tradition, is also expected to gain new value for new designs and usage to adapt to changing trends in modern times.

I am a successor of Nakjuk,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60, and I want nakjuk not limited to just a traditional skill, but focus on using diverse field. Moreover, it is believed that human beings who use Nakjuk can be benefitted from using bamboo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rapid growth.

Our country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the future of tradition, and in this study, I focused on incorporating traditional skills with modern technologies which can be used into diverse design of present materials. In addition, when making products using Nakjuk technique, it is not only reproduce the traditional styles, but also reflect into various of modern products such as home appliances by recreating traditional designs.

In this regard, the Nakjuk is believed to be a practical way to expand not just as a tradition, rather than being able to embrace a new feeling of creativity in a variety of ways. Thus, this can be expanded into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not to mention the possibility of a new sensation in the guise of a modern product.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사물에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문양에 동·식물의 형태를 담기도 하며 자연의 모든 모습,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과정을 상징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초인간적인 것을 숭고하고 외경하기도 하였다. 인류가 지내온 역사를 보면 문양은 고대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사람들은 문양을 자연의 형태로 작품에 담거나 주술적인 의미, 또는 개인이 얻고자 하는 소망 등 여러 특정한 의미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문양은 역사적으로 문자보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좀 더 나아가 문양은 개인의 창작 예술 또는 집단의 약속된 암호로도 간주할 수 있다. 즉, 문양은 문자, 그리고 언어의 원시적 표본으로서 문화 중심 기반의 틀이 되었으며, 넓은 역할로는 민족이 살아온 가치관이나 한 세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문양은 각 문화권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특성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형태에는 환경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서 그 분포가 많은 환경 특성에 의해 낙죽이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문양들이 기하학적 형태로 글이나 그림으로 물품 위에 꾸며졌다. 낙죽이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장도, 붓, 붓 통, 부채와 같은 학식과 인품을 갖춘 물품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낙죽 기법이 새겨진 물품들은 선비들과 아녀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애감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의 문양이 그림, 글의 형태로 낙죽을 통해 후대에 전승되어졌고 이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유산, 후대에도 오랫동안 자랑할 수 있는 공예 기법이 되었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작업으로 제작되었던 수많은 전통 공예품들과 낙죽 기법이 새겨진 생활용품들은 제작 시간의 단축과 보관의 용이함, 다양한 기능을 반영할 수 없는 재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장인들에 의해 세분화되었던 공정들은 기계들에 의해 자동화되었고, 소재는 가공된 유리, 플라스틱

등의 구하기 쉬운 것들로 대체되고 말았다.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영유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소비문화의 트렌드도 대상의 실용적인 측면보다 그 대상을 꾸미며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 대중들은 보다 상위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문화 전반을 내포한 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단순히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미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그들의 사고 틀을 넓혀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가 반영된 물품들이 재조명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3차 산업 혁명의 근간인 현재의 패러다임을 엮는 4차 산업 혁명, 그중에서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인간과 기계의 승부로 이슈가 되었던 이세돌과 구글의 자회사인 딥 마인드(Deep Mind)가 내놓은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은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에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인간의 수공예 분야만 남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된 문화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문화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지역성, 기후, 풍습이나 전통적인 요건에 따라 에스닉(ethnic)적인 요소와 함께 독자적으로 발전되어왔다. 물론 역사적으로 긴 세월을 가진 나라일수록 재료와 민속적으로 결합된 상품들이 다양하다.

이는 독창적인 공예품 등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나라 전통문화 중 낙죽 공예 기법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즉, 낙죽이라는 공예 기법이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코(ECO)라는 단어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대나무는 미래의 목재라 불린다. 빠르게 자라서 3년이면 목재로 쓸 수 있다. 타 나무는 50년에서 100년 이상 자라야 튼튼한 목재로 쓰이지만 대나무는 3년이면 그 가치를 증명한다. 낙죽을 응용한 현대적 산업 물품인 스탠드 조명과 수납장이나 시계 등 여러 가지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낙죽의 재료가 생장이 빠르고 활용도가 높은 대나무라는 점에서 전통공예의 전승과 더불어 새로운 문양 디자인 창출,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 산업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

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대나무에 글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는 낙죽 기법을 연구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고유 전통 기법인 낙죽이 실생활에 쓰이고, 현대 문화에 융합될 수 있도록 분석하여 향후 낙죽을 응용한 문화 상품의 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하는 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낙죽이 사용된 기법 정리와 유래를 국내외 문헌 및 실증적 자료와 참고 논문,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방법과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죽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기법의 이해를 위한 정의와 그 유래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둘째, 낙죽에 대한 기법을 알아보고 현대에서의 낙죽 공예는 어떠한 것인가 알아보며 전통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와 현대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셋째, 낙죽과 이에 대응되는 현대 기법과의 차별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낙죽에 사용되는 도구의 종류와 현대에서 쓰이는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대 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문양들과 현대 기법들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앞에서 다뤄진 역사적 배경 고찰 및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낙죽의 문양 개발 예시들을 제작, 분석하였다.

여섯째,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작품도 응용하여 문화 상품을 제작하였다.

현재 연구가 진행된 낙죽의 예를 들면 낙죽이 전통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레이저 마킹(Laser Marking)과 전기인두를 활용한 버닝이란 기법으로 낙죽에 관하여 알리고 많이 쓸 수 있도록 상품화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문화상품의 배경

1. 문화상품의 정의

산업의 발달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관심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 미학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21세기에 들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미적 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예술이라는 범위로 확장되며 다방면으로 미적 가치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술은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었고, 문화 산업으로 이어지며 생산과 같은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해석을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다수의 이익과 높은 경제적 창출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추구하게 되었다.

과거의 각 나라들은 고도의 기술을 집약한 상품들이 국가 간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 판단했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국경의 의미는 무색해졌고 문화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됨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인류가 쌓아왔던 문화가 상품에 결합하게 되었을 때 그 가치가 높아 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문화란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쌓아왔던 모든 언어, 종교, 예술 등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을 말한다. 때문에 문화는 지역적, 국가적 특색을 갖고 선대에서 후대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유·무형의 총체적 산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는 민족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민족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상품의 경쟁력은 문화적 가치가 포함되었을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인간이 많은 시간을 지내오며 만들어낸 집단이나 민족의 정신적 산물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창출 할 가능성을 지닌 경쟁력 있는 산업의 기반이다. 이렇게 문화적 가치는 산업 영역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고, 거기에 친환경적인 소재가 더해진다면 대중적인 산업화가 가능해져 경제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각 나라는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산업 즉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개성 있는 개체물들이

나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문화 상품은 문화를 소재로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활동의 결과물로, 단 시간 내에 얻어 낼 수 있는 공산품과는 달리 민족의 오랜 영원과 전통이 결합된 정신적 창작물이다. 첨단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상품이 창출된다면 첨단 기술의 편리성과 문화라는 소재의 익숙함으로 문화상품이 대중들의 삶 속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다.

부가적으로 문화상품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문화가치를 함유하는 것과 더불어 복합적인 체험, 오락성, 창의성, 지역적 특색을 갖추고 이를 홍보할 대대적인 광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잊혀져가는 전통을 되살린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걸 맞는 우리민족만의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경제적 부의 증진과 문화를 보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상품의 특성

문화상품이란 문화 전반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체험, 상품 등의 유·무형의 산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상품은 다량으로 생산되고 종류가 다양한 공산품과 달리 소량으로 생산되어 상품마다 개성이 있다. 이와 같이 문화상품은 일반상품과는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상품은 다수의 편의성을 만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 되지만, 문화상품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생산한다.

둘째, 일반상품은 한정적인 아이디어로 개발 되는 것에 반해, 문화상품은 민족이 오랜 시간동안 축척한 고유의 특징과 개성을 갖고 있어 실용적인 것보다 심미성을 추구한다.

셋째, 일반상품은 대중을 만족 시켜야 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문화상품은 나라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일반상품은 한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결과물로 이미 제조가 끝난 상품들이 가지는 의미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화상품은 여러 공간 안에서 체험과 서비스 등 동시다발적인 상품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 2절 낙죽의 일반적 고찰

1. 문양으로부터의 낙죽의 배경

어느 시기부터 인류가 모든 사물에 문양을 입히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는지 정확한 역사의 시기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인류는 동·식물의 형태, 자연현상과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사물에 문양으로 각인함으로써 한 시기의 생활 모습과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수단으로 인류는 자신들의 생활 행적을 문양으로 남김으로서 후대에 알리고자 했다. 문양 속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렵의 모습과 생활 속의 단면적인 의식주를 찾을 수 있는데, 인류는 벽 또는 도구에 삶 속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미적 추구심(美的 追求心)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문양을 표현하는 도구는 발달하였고, 인류 역사의 발전 속에서 도구는 사용에 용이한 모습으로 변화를 함께 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구는 각 민족의 특성을 고려한 종교성과 주술적인 영원을 담은 형태의 물품으로 등장하게 되며, 원시 미술 형태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민족의 고유한 형태를 나타내는 문양들이 발달했다. 이러한 문양들은 초창기 동굴의 벽에 그리던지 다른 물품에 조각으로 문양을 남기게 되면서 예술에 대한 원천이 되었다.

문양의 사전적 의미는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간이 점이나 선, 색채 등을 이용하여 도형과 같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문양은 어떤 목적인지 왜 이 위치에 넣었는지 의미를 전해 주고 있어, 미적 표현의 3요소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덧붙여서 문양은 회화·조각·공예의 원천으로 보며 각기 민족을 대표하며 문자가 형성되기 전 소통될 수 있는 고유의 형태라고 본다.

더 나아가 문양으로부터의 문화적 발달은 예술로 시작하여 문자의 발달로 이어지며 인류의 발달사와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문양은 앞서 말한 영원을 담은 형태의 의미를 인간의 예술적 욕구로 표현하고자 하며 상징화하며 문명의 기동인 문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문양의 조형적 표현의 시원은 먼저 그림 문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시시대에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었던 신성한 표시나 기호가 무늬를 비롯한 그림과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 큰 나무와 암벽·바위·자갈 또는 동물의 뼈나 뿔 등에 자연·비자연적인 어떤 형상을 선각(線刻), 부조(浮彫)하거나 아니면 채색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에서 무늬와 그림, 나아가서는 문자의 형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¹⁾ 예를 들면 중국의 상형 문자가 비 雨로 설명컨대 < 그림 1 >²⁾을 보며 이러한 자연 현상 소통을 위한 문양의 발전이 문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달 月자처럼 < 그림 2 >³⁾ 같다고 확인 된다.



< 그림 1 > 상형문자 비 우 雨



< 그림 2 > 상형문자 달 월 月

일반적인 다른 미술과 달리 문양은 고유한 형태를 갖는데, 이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표현되어지거나 시대상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문양은 집단, 개인의식의 반영이며 정신 활동의 소산물임과 동시에 창조적 문명 활동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문양에는 조형 미술의 일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제의 성격이나 표현의 내용으로 볼 때는 순수 감상용 미술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곧 순수 감상용 미술이 작가 개인의 주관적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것인 반면에 생활 미술로서의 문양은 항상 집단적인 가치 감정의 상징형으로 일반화되어 있다.⁴⁾

표현적 특징으로서 문양은 어떠한 형태를 상징화함으로 거칠고 투박하다. 또한 현 세계와는 다른 개인 기억의 산물을 활용하여 환경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진 상상 속의 동물들이 노니는 모습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새길 수 있어 개성을 갖는다. 예컨대 눈이 내릴 때 호랑이와 나비가 그 위를 뛰어노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새긴 것을 통해

1)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양'
 2)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비 우'
 3)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달 월'
 4)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11p

알 수 있다. 또한 부속적으로 문양은 약속된 부호와 같은 암호적인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사람들은 용의 문양이나 해태의 문양을 보며 이해를 하고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종교적이며 주술적인 문양도 있다. 예전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자연의 힘 즉, 천명에 의존하였다. 그리하여 비가 많이 오도록 기원하는 우(雨)를 형상화하여 문양을 넣기도 하며 또는 설화에서의 내용을 가져와 장수하고 싶은 마음에 거북이 문양을 넣어 오래 살고자 하는 소원을 넣었다. 다시 말하자면 주술적인 형태의 문양은 민족의 그 시대상의 문명에 따른 공통적인 염원이다. 가지각색의 염원이나 기원을 넣어 후대로 전달하며 국기와의 형태도 지니게 된다.

한국의 전통 문양은 농경 생활부터 석재 또는 나무에 문양을 넣어 기원을 하였다. 그중 목재라는 큰 틀 안에서 대나무는 자생력이 좋으며 번성이 빠르고 분포도도 넓다. 대나무 분포 면적으로 보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남은 남한 전체로 볼 때 55%(3.918ha)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왕대와 송대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어, 남부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이들을 이용한 생활용품들을 많이 만들어 사용하였다. 여러 분묘나 사적지에서 발굴된 사실들을 통해 선사시대 이전부터 대나무로 만든 악기들과 수렵을 위한 용품 그리고 전쟁에 쓰기 위한 화살, 화살촉 등이 제작되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러한 유물을 보면 인간은 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던 물품들에 문양을 새기거나 그려 넣으며 장식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였다.

실생활에서 대나무가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 많았다. 이로 인해 대나무는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며 낙죽으로 문양을 많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낙죽에 대한 문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낙죽의 상위개념인 낙화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낙화는 불로 태우거나 지지며 종이, 나무, 가죽 등에 표현하는 기법이다. 낙화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표현과 창작에 대한 욕구가 대나무 등 용품에 미적 감각과 함께 반영되어 낙죽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붓을 이용한 서예와 같은 예술들은 상대적으로 상류 계층에 독점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낙죽 기법이 반영된 일상용품들을 『오주연문장전상고』 등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낙죽 공예가 특정 계층에게 편향된 소수의 예술과 다르게 별

5) 김종태 『한국 수공예 미술』, 예경산업사, 1991, p127

다른 거부감 없이 다양한 계층 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를 통해 낙죽 공예가 그만큼 대중에게 접근하기 친숙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에 녹아있는 많은 생활용품들은 낙죽 기법을 통해 예술성을 부여 받을 수 있었고, 그 사물이 지니는 기본적인 가치를 뛰어 넘을 수 있었다. 예로 들자면 ‘낙죽장도’는 백제의 비수에서 유래된 칼로 그 원형이 변치 않고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장도이며 책 한권을 대나무 표면에 인두로 낙죽을 하며 명예로운 자에게 어사(御賜)하는 장도이다. 어사하는 검중에 < 그림 3 >의 사인검(四寅劍)이라 하여 귀신, 악재를 쫓는 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물품이 있다.



< 그림 3 > 낙죽장도 사인검(四寅劍)

우리나라의 낙죽과 낙화에 대한 전통 공예, 문양을 새기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문양은 약속된 암호이기도 부호이기도 하다.’ 에서 개개인의 물품을 표시하거나 가축에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의 인장으로 자기만의 표식을 남기는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며, 또한 앞서 말한 인간의 상징화에 대한 욕구로 인한 장식적 미로 낙죽을 함으로 점차 기법이 발달되었다고 사료된다. 문양은 어떠한 기법으로도 표현되며 그 중에서 낙죽과 낙화 또한 불의 사용 후에 문양의 발달사에 기여하며 기법으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 왔다.

2. 낙죽 대나무 물성

대나무는 표피가 매끄럽고 반들반들하여 채상과 같은 바구니로 제작될 수 있고, 속이 비어있어 악기로도 만들 수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나무이다. 두께가 얇거나 두껍게 결을 자유자재로 쪼개기 쉽고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어 가공하기에 좋으며 부분별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탄력성 또한 유연하고 열을 가하면 휘어지기도 하여 예전부터 각종 용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낙죽 기법에 쓰이는 대나무는 선별을 잘해야 한다. 대나무는 너무 어려서도 안 되며, 너무 오래된 것도 피해야 한다. 적당한 시기를 지난 대나무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낙죽은 작업 과정이 복잡하고 재료에 대한 정성이 쏟아져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나무를 선별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낙죽 작업 중에 벌레가 먹은 대나무가 발견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작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나무의 선별 능력과 특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1) 대나무 일반적 정의

대나무는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 대나무아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키가 큰 왕대속 종류만을 대나무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높이 20~30m, 지름 30cm까지 자라며 줄기나 뿌리가 옆으로 지나치게 성장하지 않는다. 일반 나무들은 성장하며 지름이 커지며 높아지나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대나무는 죽순 때의 둘레가 나무의 굵기를 결정한다.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겉은 매끄럽고 깔끔하고 생김새는 울퉁은 모습으로 직선적인 성질이 있으며 겨울에도 푸르러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나무이다. 땅속 뿌리는 옆으로 뻗어 뿌리 마디에서 대나무 자루가 나오고 잎은 대체적으로 좁고 얇은 형태이며 길다. 습지를 좋아하며 평지, 경사지를 가리지 않고 자란다. 생장이 빠르고 꽃이 거의 피지 않지만, 필 경우에는 뿌리가 수많은 개체들과 연결되어있어 꽃이 일제히 피며 대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소모하여 전체가 죽는다.

2) 대나무 어원

대나무는 대와 나무의 합성어이다. ‘대’ 라고 불리기도 하며 한자로 죽(竹)이라고 쓰인다. 대나무 죽(竹) 자는 2개의 대나무 줄기에 나무 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본을 따 만든 글자이다. 중국 남방에서는 죽 자를 텍(tek)으로 읽는데, 끝소리 ㄱ 음이 약하게 되어 한국에서는 대로 변천하였고 일본에서는 한국어의 대가 다로 변천되었고 나무를 뜻하는 케(木)와 함께 다케로 불리게 되었다.⁶⁾

3) 대나무 분포도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는 120여속 1,250종이 분포하고 있을 정도로 그 종이 매우 많고 습기가 많은 온·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자란다. 지리적으로 보면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51° 남위 47°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 분포지는 아시아이다. 온·열대와 아열대 지역 중심으로 2천 2백만ha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옛 말에도 ‘우후죽순(雨後竹筍)’ 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의 뜻으로 비온 뒤 대나무의 죽순이 순간적으로 많이 자란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대나무는 성장속도가 타 나무에 비하여 풀에 비견할 만큼 빠르기 때문에 분포도가 넓다. 이처럼 대나무는 성장속도가 빨라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 ‘녹색황금’ 또는 ‘생금(生金)’ 으로 불리며 미래의 자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성장속도가 빠름이 증명되는 대표적인 설화가 있다. 대나무 중에는 효자나무로 알려진 맹종죽이 있다. 이는 중국 삼국시대 맹종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다. 맹종은 오랫동안 아프신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자 한 겨울에 대밭에 가서 보았으나 죽순을 구할 수가 없었다. 죽순을 구하지 못한 맹종은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니 그곳에서 때 아닌 죽순이 돋아났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를 통해 대나무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5속 19종이 있으며, 외래에서 도입된 종을 포함하면 5속 54종이다. 분포하는 면적은 약 5,360ha로 왕대와 솜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왕대는 2,996ha이며 솜대 2,294ha이다. 대나무 품종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에 분포하는데 중국

6)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 나무’

에 약 600여 종, 일본에 약 662여 종이 자생한다. 대나무는 습기가 많은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제한적이다. 온대 낙엽활엽수림 지대의 온대남부 지방으로 동해안은 경상북도에서 강릉 부근까지, 서해안은 충청남도 중부의 태안반도까지와 전라북도 남부 이남 지역이며, 지리산과 한라산에 많이 분포한다.7)

① 왕대와 솜대

왕대는 당죽(唐竹)이라고도 불리며 중국이 원산지이다. 씨앗은 저장물질이 풍부한 벼과식물이기에 자연생태계 속에서는 잘 보관되지 않아서 사람의 손길로 퍼졌다고 한다. 솜대는 분을 칠한듯하게 보인다 하여 분죽이라고 불린다.

강원도 양양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강릉, 삼척으로 이어져 경북 안동과 김천을 거쳐 충북 영동, 전북 무주, 충남 부여, 태안으로 연결되는 이남 지역에 분포하며 전라남도 지역에는 많이 분포한다.

② 조릿대, 이대 등

조릿대 : 산죽이라고 하며 길이가 길다. 함경남도 이남의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등 주로 산에 자생한다.

이대 : 해안죽 또는 신의대라 하며 과거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화살 제작을 위해 재배되었다.

③ 지역별 분포 면적 비율

지역별 분포 퍼센트를 보면 전남 지역이 49%, 경남 지역이 38%로 두 지역의 대나무 숲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대나무 숲 면적의 87%를 차지하며 그 외에 전북과 경북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7) 권상오, 남천균, 노은희, 박종화, 『공예 재료와 기법』, 태학원, 1999, 185p

< 표 1 > 담양지역 죽세공예품 8)

종 류	주 생산 지	크 기	용 도
맹 종 죽	전남·북	12m	모자류, 삿갓, 죽석, 기타 공예품, 죽순
오 죽	전북, 경남북, 강원	3~20m	구문발, 참빗, 기타 공예품, 농
솜 대	전남북, 경남북	10m	부채, 가구류, 대 악기, 패도
왕 대	강원, 전남북	10~20m	바구니류, 세공예품, 식용품
이 대(산죽)	강원	2~5m	화살대
고려 조릿대(신의대)	전남북, 경남북	25~82m	약품
괴주 조릿대(산대)	제주	20~60m	부채
조릿대(갓대, 산죽)	전남북, 함남, 평남	1~2m	관상 죽, 정원

< 표 1 >를 보면 대나무 종류별로 자라는 장소와 쓰이는 용도를 알 수 있다.

8) 김진열 「담양지역 죽세공예품에 대한 고찰」, 1993, 20p

4) 낙죽을 할 수 있는 대나무 종류

낙죽 용도의 죽종(竹腫)은 오죽을 제외한 모든 대나무로 사용할 수 있다. 오죽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이 검정색이라 낙죽으로 표현되는 색상과 유사하여 사용이 불가하다.

① 왕 대 :

< 그림 4 >를 보면 녹색에서 황록색의 줄기를 가졌다. 높이 10~15m, 지름 3~10cm로 자라며 표면광택이 대나무 중에서 가장 좋다. 탄력성이 좋고, 세공하기 쉬우며, 섬유 또한 질겨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어 붓대롱, 필통, 선추침통, 합죽선 등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② 솜 대 :

< 그림 5 >를 보면 높이가 10~15m, 지름 3~10cm로 자라며 줄기 표면에 하얀 '분'이 피어 있어 분죽(粉竹)이라고도 불린다. 재질이 대나무 중에서 제일 치밀하며 죽세 용품으로 자주 쓰이는 재료이다.

마디와 마디 사이가 촘촘하여 마디를 살려서 낙죽을 하는 용도로 적합하나 표면광택은 왕대에 비해 떨어진다. 낙죽장도, 합죽선 변죽, 붓대롱 등에 쓰인다.

③ 맹종죽 :

< 그림 6 >을 보면 높이 10~20m, 지름 20cm 정도로 대나무 중 가장 굵다. 대나무 중에서 가장 대경죽종(大徑竹腫)이다. 낙죽 용도로는 필통용으로 쓰일 만큼 매우 단단하다. 하지만 윤기가 적고, 탄력성이 적어 부러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표면광택은 여러 죽종 들과 비교해 떨어진다.

④ 신의대 :

해안죽으로 불리기도 한다. < 그림 7 >을 보면 주로 바닷가에서 자라며 가늘고 마디가 미끈하다. 바닷바람을 맞아 강하나 표면 광택이 떨어지기 때문에 붓대롱과 죽장의 표면 장식에 붙여 쓴다. 낚싯대·대바구니 등의 공예품 재료로 사용된다. 또한 낙죽을 하면 갈색을 띤다.

종족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그림을 가져와 보았다.



< 그림 4 > 왕 대 9)



< 그림 5 > 솜 대 10)



< 그림 6 > 맹 종 죽 11)



< 그림 7 > 신의대 12)

9)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왕 대'

10) <http://cafe.naver.com/wildfiower72843>

11) http://blog.naver.com/miso_kj/30138151856

12) <http://blog.naver.com/hjm7471110167048271>

3. 낙죽의 이해

1) 낙죽의 정의

낙죽(烙竹)은 뜨겁게 달군 인두로 대나무 겉면을 지저 글씨(낙필; 烙筆)를 쓰거나 그림과 무늬를 검누르게 탄 색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나 그렇게 만들어진 대나무 공예품 또한 포괄하여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낙화를 화화(火畵)법 즉, 불 그림으로도 부르기도 하였다. 같은 아시아 권역인 중국에서는 탕화(燙畵)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소화(燒畵)로 불리어진다. 탕화는 달군 쇠로 지진 그림이란 뜻이며 소화란 불로 태운 그림으로 낙화의 뜻에서 차이가 없다.

낙죽의 사전적 의미는 불로 지진다는 뜻의 낙(烙) 자에 재료를 뜻하는 죽(竹) 자가 합쳐진 말로 대나무에 문양을 불로 새기는 의미로 해석 된다. 그리고 낙죽 하는 과정에는 ‘낙을 놓다.’, ‘낙을 지진다.’ 라는 용어가 쓰인다.

낙죽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불을 이용하며 그림을 새겨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낙화(烙畵)¹³⁾’의 개념이 등장한다. 낙화는 대나무 외에도 종이, 나무, 박, 가죽, 천 등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다.¹⁴⁾ 낙죽이 알려진 조선 후기 낙화를 하는 이들은 종이와 천, 가죽 등의 고급 재료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생필품에서 자주 쓰였던 재료인 대나무에 눈길을 돌렸으며, 자연스럽게 대나무는 친숙한 소재가 되었고 낙화의 하위 개념인 낙죽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낙죽의 상위 개념은 곧 낙화로 볼 수 있다.

낙화 또는 낙죽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로는 기억자 꼰의 인두가 있는데, 그 모양새는 앵무새 부리이며 끝 모양이 뾰족한 것과 둥근 모양의 것이 있다. 끝이 뾰족한 인두와 둥근 인두는 열이 식혀지는 속도가 다르다. 끝 모양이 뾰족한 인두는 낙죽에서 낙필하는 용도로 쓰이고, 둥근 모양의 것은 넓은 면적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된다. 인두를 달구는 데에는 목탄 즉, 숯을 이용한 숯불이 쓰이며 작업하는 자의 숙련도에 따라 대나무에 농담을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 낙죽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숙련도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방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많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기법이다.

13) 낙화는 재료적으로 불 때 낙죽의 상위개념이라 칭한다.

14) 김인규·김기찬·김삼기, 『낙죽장』 민속원, 2008, 12p

2) 낙죽에 사용되는 불에 대한 정의

낙죽을 하며 기법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숯의 선택은 까다롭다. 낙죽 작업은 화덕에 가까운 곳에 지긋하게 앉아서 인두에 열을 가하는 것을 보며 인두에 온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고로 숯은 사용자에게 < 그림 8, 9 >와 같이 불이 튀지 않아야 하며 인두를 오랫동안 달구어 작업을 진행하기 편하게 해야 한다.

숯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참숯은 애용하지 않는다. 참숯은 인두를 가열하며 높은 온도를 급히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불꽃이 튀어 사용자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 그래서 소나무 숯을 자주 애용하는데, 소나무 숯은 나무 특성상 무르며 화덕에 가까이 놓고 쓰기에 좋다.

인두 열의 온도는 장인들이 느낌으로 하는데 보통 400℃의 온도로 사용한다. 400℃의 열은 낙죽의 농도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200℃이면 잘 그을리지 않아 표면에 열은 농도의 선이 그어진다. 이와 반대로 600~800℃ 온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나무 표면이 버티지 못하고 짙은 농도의 선으로만 그어져 낙죽에 무리가 생긴다.

이러한 숯은 질화로로 옮겨져 사용된다. 질화로의 재료는 안과 밖이 다르다. 겉은 열로 인해 질화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쇠가 소재이고, 안은 숯의 열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황토가 재료이다. 이러한 질화로는 황토 진흙으로 화로 모양을 빚은 후 질그릇가마에서 구워야 그 모양을 갖추게 된다.



< 그림 8 > 숯 불¹⁵⁾



< 그림 9 > 화로 이용¹⁶⁾

15) <http://m.blog.daum.net/nivcgo18347687>

1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3) 낙죽의 기본 무늬

낙죽의 기본 무늬는 매난국죽(梅蘭菊竹)을 기본 형태로 잡으며, 상서문자·을자(乙字)무늬·귀갑(龜甲)무늬·박쥐·구름·산수·사슴·송학(松鶴)·매화·난초·포도덩굴·죽엽(竹葉)·다람쥐·왕새우·속새·조 등 민화풍이며, 이 무늬 문양들을 여러 가지로 합작하여 조화롭게 변형시켜 뜻을 담기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전통 문양은 아래의 설명과 < 표 2 >와 같다.

- ① 소라문 : 입체감으로 곡면에 잘 어울린다. 물품에는 주로 부채, 침통 등에 쓰인다.
- ② 점문 : 점 문양으로 낙죽에서 배경으로 많이 쓰인다.
- ③ 산수문 : 넓은 면에 활용하기가 좋아 필통이나 차 판 면에 쓰인다.
- ④ 박쥐문 : 왕가에서 많이 쓰였으며 부귀를 상징한다. 물품에는 주로 부채와 실패, 버선자가 쓰인다.
- ⑤ 귀갑문 : 거북은 생김새가 여러 가지 동물의 복합체로 되어 있다고 믿어 장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6각 또는 8각의 문양으로 나타낸다.
- ⑥ 연화문 : 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좋은 일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며 아름답게 꾸미고자하는 의미로 쓰인다. 연화문 또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 물품에서 많이 응용되며 민화와 같은 느낌을 낼 때 쓰인다.
- ⑧ 사군자문 :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문양으로 선비의 품채, 자손번창 지조와 절개, 군자의 품격을 나타낸다.
- ⑨ 십장생문 :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거북, 불로초, 사슴, 학 등 10가지 자연을 대상으로 문양을 새긴다.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고 있다.
- ⑩ 만자문 : 불교에서는 주로 길상과 행운을 염원하며, 건축에서는 풍수지리설과 같이 쓰인다. 낙죽에서는 구름 문양과 같이 사용하여 만자문의 딱딱함을 풀어준다.
- ⑪ 백수백복문 : 오랫동안 살며 복을 염원하는 의미이다. 주로 필통에 쓰인다.

< 표2 > 낙죽의 기본 무늬

명칭	사진	설명
소라		낙죽과 조화가 잘 어울리며 예전부터 물품에 자주 나오는 문양이다.
점 낙죽		점 문양을 낙죽 한 것으로 빈 공간을 채워 농도를 조절할 때 쓰인다.
산수		낙화의 기법에 많이 쓰이며 낙죽에서는 필통이나 넓은 면적에 낙을 시문할 때 쓰인다.
박쥐		다산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귀갑		거북이의 등판처럼 6각이나 8각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낙을 시문하며 쓰인다.
연화		낙화의 기법으로 많이 쓰이며 낙죽에서는 민화를 표현하고자 할 때 쓰인다.
국화		매난국죽의 국화 문양이다.
매화		매난국죽의 매화무늬이다.
소나무와 학		십장생은 불로불사의 의미로서 사람들의 불행 없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염원이 깃들어진 문양이다.
사슴		만수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을 소망하는 문양이다.
구름		신령한 문양으로 길상과 행운을 소망하는 문양이다.
포도		다산을 영원하는 문양이다.
백수수복(수)		무병장수와 복을 영원하는 의미이다. 여기서 수는 '목숨 수' 로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4) 낙죽 방법

낙죽 작업은 허리를 곧게 세워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 장시간 작업하는 것은 힘들다. 낙죽은 사용자에 따라 각각 편리한 방법이나 보조용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낙죽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왼손으로 대나무를 쥐어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낙죽을 하고자 하는 곳을 조절하며 왼발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에 인두를 쥐어 몸 전체의 움직임으로 인두를 밀어내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왼손에 댓가지를 쥐고 가부좌를 틀어 왼발이 올라오게 하여 위에 댓가지를 대어 오른손에 쥔 인두와 댓가지를 함께 밀어내는 식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되 숨을 일정한 방식으로 쉬며 낙을 시문 과정에서는 숨을 정지하며 피부로 쉬는 기 호흡 방식으로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앞서 말한 일반적 방법과 다르게 인두를 쓰지 않고 낙을 시문 방법이다. ‘판 낙죽’ 이라고 불리는데, 판 낙죽의 방법은 판에 문양을 새겨 문양의 틀을 만든 다음 판을 달군 후 대나무를 그 위에 굴리어 낙을 시문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문양을 낙죽으로 새기는 과정에서 인두가 사용될 때 너무 달궈진다면 90도로 세우며 인두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조심히 낙을 시문해야 한다. 하지만 달궈진 인두가 식어 선이 잘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식기 전에 인두의 넓은 면적으로 연속된 무늬를 완성시켜 낙을 시문한다.

5) 낙죽 과정

대나무의 특성은 천연 그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무의 탄력이 강하며 결대로 쪼개기가 쉽고 속이 비어서 활용하기가 좋다. 특히 대나무의 표피에 있는 특수 섬유질 층에 흡집을 내면 그 보존도가 오래 지속되어 낙죽 작품을 하기에 알맞은 재료가 된다.¹⁷⁾ 따라서 낙죽은 좋은 대나무를 고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대나무가 해충에 먹어서도 안 되며, 상처를 입은 대나무로 낙죽 작업을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

17) 김인규 · 김기찬 · 김삼기, 『낙죽장』 민속원, 2008, 65p

대나무 채취 시기는 9월에서 12월까지가 적기이다. 겨울은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끈기가 적어지거나 굳어있어 좋지 아니하고, 여름은 대나무의 양분이 충분하여 벌채를 하면 말리는 과정 속에 벌레들이 그 양분을 먹을 수 있어 좋지 않다. 따라서 좋은 시기는 늦은 가을이며 9~12월이 적기이다. 벌채할 때는 낙죽하기 좋은 대나무를 선별하는데, 왕대 또는 솜대를 사용한다. 대나무 벌채의 적령기는 2~3년생이 적당하며 너무 늙거나 어리면 해충에 약하고 재질이 물러진다.

공예용으로 좋은 대나무는 강도가 높은 왕대와 솜대이다. 맹종죽은 크기는 크나 재질이 약하여 특정 공예용으로 쓰인다. 벌채 후 직사광은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거꾸로 세워 말린다. 또한 말리기 전에 대나무를 잘 묶어서 보관하여야 하는데, 묶지 않고 보관한다면 쓰러지면서 옆의 대나무에 상처를 입혀 낙죽하기 어렵게 된다.

낙죽 재료로서의 대나무는 너무 말라서도 안 되고 적당히 물을 머금고 있어야 단단한 껍질 위에 섬세한 무늬를 넣을 수 있다. 대나무를 폭 삶아 놓기 위해 대나무를 가지런히 놓으며 한차례 폭 삶아내야 갈라짐도 방지가 되고 또 거친 표면은 윤기를 나타내고 광택이 나오게 된다.

낙죽 과정에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한 획을 긋기 위해서는 숙련도가 필요하며 불의 온도에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인두는 두 개 이상을 준비하여 질화로에 꽃아 두고 번갈아 사용한다. 이는 인두의 재질이 철로 되어 있어 온도가 급격한 변하기 때문에 알맞은 열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다.

인두가 알맞은 온도로 유지되며 작업을 하는 것과 그 알맞은 온도 400℃로 대나무의 표면에 농도를 표현하는 것은 최고의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대나무 표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뜨거운 온도로 작업을 한다면 인두의 끝이 대나무 표면 깊숙이 들어가 작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색채의 표현이 끊겨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열이 약하면 무늬, 문양의 색채 농도가 얇아져 색에 변화가 생기고 끊임없이 선을 반복되게 하여 볼 품이 없어지고 작업에 진전이 없다. 열기에 대해 적합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두 즉, 앵무새 부리의 모양의 부분을 볼 근처 가까이 대며 열기를 가능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올바른 예시는 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우며 오랜 기간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인두를 쓰면서 농담(濃淡)을 섞어 문자를 이용한 언어의 전달 그리고 문양, 무늬나 그림의 내용을 정확하고 능률 있게 표현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낙죽장(烙竹匠)은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낙죽 작품은 과정이 까다롭고 숙련도와 수많은 경험이 들어가야 하며 어렵기에 기량과 재능도 필요로 한다. 예전 조선시대에도 낙이 놓인 작품들은 타 공예품에 비해

가치가 높았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도 인간적으로는 천대를 받았어도 낙죽만은 사대부가 앞을 다투어 사갈만큼 총애를 받았다는 순조 때의 일급 낙죽장(烙竹匠)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낙죽이 장식적인 공예 그림으로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담양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참빗이라고 해도 낙죽이 없으면 값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며 낙죽이 좋고 나쁨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고 한다.¹⁸⁾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휴대할 수 있는 패도(佩刀), 합죽선의 부채살, 버선자, 참빗의 등대, 장죽·대지팡이의 마디에서 마디의 사이 부분, 대나무를 통으로 잘라서 만든 죽제필통 찬합, 현판, 병풍 등에 주로 장식되며, 그밖에 대로 만든 죽장가구 등 여러 가지에 디자인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3 > 낙죽 전통 작품¹⁹⁾

			
낙죽 부채	낙죽 필통	낙죽 불자	낙죽 병풍
			
민 담뱃대	낙죽 참빗등대	낙죽 버선자	낙죽 장도

18) 오병수, 전통문화 월간전통문화사 1985.06, 121p

19) <http://www.iha.go.kr/main/index.nihc>

6) 낙죽 과정 사진²⁰⁾



<그림10> 대나무 채취



<그림11> 대나무 삶기



<그림12> 진 빼기



<그림13> 건조



<그림14>보관, 대나무 선별



<그림15> 낙죽 자세 잡기



<그림16> 온도 확인



<그림17> 인두 재털기



<그림18> 낙죽 과정

20) 김인규 · 김기찬 · 김삼기, 『낙죽장』 민속원, 2008, 72~78p

7) 낙죽 작품의 판별 기준

작품이 좋고 좋지 않음은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논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낙죽의 기법이 들어간 작품에는 대나무 마디와 상태에 따라 정성의 유무 차이를 둘 수 있다. 물론 개인의 미적 감각에 따라 대나무 마디의 조화에 그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각 작품의 용도에 따라 나뉜다. 예를 들어 낙죽장도와 대나무 지팡이에는 뿌리에서부터 마디가 좁은 것을 선호하고, 낙죽 필통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마디의 좁음보다 넓으며 균형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

낙죽의 무늬에 대한 작품의 평가를 내릴 때에는 농담과 밀도를 확인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차이가 심하거나 선의 중복이 많거나 비뚤어지면 작품이 표현해야 할 문양이 흐려져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여백과 밀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낙죽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낙죽에서는 농담과 밀도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작가들에게는 그것을 위한 온도에 따른 인두 사용의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며 낙죽장의 기술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며 상용화가 되지 않아, 현대에서의 낙죽은 쉽고 빠름의 상품화에 의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사람들로 부터의 인식 속에서 잊혀간 문화유산이었다. 그러나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공예의 하나로써 이른 시기의 문헌 자료가 없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전승되고 있다.

4. 낙죽의 역사

인류 발전사를 더듬어 볼 때, 인간은 하나의 사물을 미적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시하였다.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자 할 때 불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는 석기를 이용하여 동굴 또는 자신들의 거주지에 묘사하였고, 수렵의 시기에는 열매나 앞에서 나오는 즙을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후 인류는 정착을 하게 되며 개인의 물품에 소유권을 표기하거나 행사를 하면서 점차 예술에도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행위인 예술에 다가가면서 낙화, 낙죽이 발생 되었다고 본다.

낙죽과 낙화 기법이 발생한 유래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인류가 불의 사용법을 발견하면서 시작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낙죽의 기법이 기물에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친숙해지게 된 것은 고대 중국에서부터이다. 관청 소유 기물의 표면에 관청 명을 낙인(烙印)하여 다른 소유자의 기물 또는 문서와 구분하고 관의 권위와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측면이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낙죽의 처음 모양새는 소인(燒印)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에는 우마(牛馬)와 죄인에게 낙인을 찍었는데, 우마에게 표시하는 것을 소인이라 하고 죄인에게 표시하는 것을 낙인(烙印)이라 하였다.

낙죽이 기물의 장식으로 사랑을 받고 대중화가 시작된 것은 청나라 초기인 1700년 경부터이다. 청나라 윈난성(雲南省) 무정주(武定州)에 무염(武愷)이라는 사람이 섬세한 조각 기법과 함께 낙죽 기술이 뛰어나 솟을 붓처럼 깎아 불을 붙여 가는 대나무 젓가락에 산수·인물·대각(臺閣)·조수(鳥獸)·임목(林木) 등을 그렸다. 특히, 18학사도(十八學士圖)는 대젓가락에 그린 작품으로 매우 비싼 값에 매매되었다.²¹⁾

무염은 절개가 높아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낙화를 해주지 않았으며, 가난한 선비나 스님들에게는 한 잔의 술만으로 젓가락에 낙화를 해주어서 낙죽 기술은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우리나라에까지 낙죽의 제일인자로 알려지게 되었다.²²⁾

앞서 말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낙죽과 낙화의 출현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세한 문헌이 없다. 1967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서도 낙죽장(烙竹匠)을 “낙죽의 발생에 관해 이를 명확히 규명할만한 문헌은 없다”고 서

21) <http://blog.naver.com/rokmc9378/60153086182>

22)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낙죽’

두에 언급하고 있다.²³⁾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낙죽, 낙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제 기법이 알려지며 활용하기 시작하였는지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육군 박물관의 소장 자료인 『한국무기발달사』 고려사 자료에서 낙죽에 대한 일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자기 것을 문양으로 표시하며 낙인을 찍던 시대에 전쟁터에서의 한 장군이 군대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중 어떠한 병사가 자신의 방패에 쇠붙이로 글을 적는 이가 있었다. 그 장군이 병사에게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보통 전쟁터에서의 방패는 무서운 그림을 그리거나 수호신을 그린 건데, 왜 자네는 글을 써서 남기는 것인가?’ 하고 물으니, 병사는 ‘글로 나의 지조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낙죽의 유래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일화가 있듯 낙죽, 낙화에 대한 기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유물로서의 증거는 대나무라는 재료의 한계성과 기법의 특이성으로 인해 보존하기 힘들었으며 오래된 유물조차 유실 되어 이것을 입증할 문헌과 기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낙화의 출현 시기와 낙죽의 연원이 동일하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낙화라는 것은 낙죽의 상위 개념이라 칭하고 있다. 이는 재료적인 면에서 낙죽이 대나무에만 하는 것에 비해 낙화는 더 많은 재료에 기법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개념으로 여긴다. 과거의 낙화는 재료의 다양성과 의미의 넓고 좁음에 따라 낙죽과 구별을 되었지만, 현재는 낙죽과 낙화는 용어의 구분 없이 사용된다. 다만 낙죽과 낙화를 구분 짓자면 공예적 요소가 강하면 낙죽이라 보고 회화적인 요소가 강하면 낙화로 보고 있다.

낙죽이 출현한 연원은 확실치 않으나 그나마 사료로 추측이 되는 시기로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에 생활필수품의 수요 도에 따라 낙인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법전 중에서 낙죽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나무 공예에 관련된 ‘죽장(竹匠)’을 경공장에 2명, 선공감에 20명, 그리고 ‘죽소장(竹梳匠)’ 2명을 경공장과 상의원에 각각 배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죽소장은 대빛을 만드는 장인으로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지만, 죽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장인지는 불분명하다.²⁴⁾

앞서 말한 경공장, 선공감에서 대나무 공예를 익힌 죽장과 죽소장을 배속한 인원이 모두 낙죽 기술을 전수받아서 하는 공장인지 공예품만을 만드는 인원만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렇게 추측하기엔 문헌이 없어 조선 초에 낙죽이라는 기술이 있는지 확

23) 김인규·김기찬·김삼기, 『낙죽장』 민속원, 2008, 13p

24) 김인규·김기찬·김삼기, 『낙죽장』 민속원, 2008, 13~14p

정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시기에도 기록된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낙죽, 낙화는 오랫동안 쓰이고 일상 용품에 보편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활용이 되었다면 전해오는 물품들이 존재 할 만하나 일상 용품의 수명이 짧고 버려지어 보존이 어려운 면이 있어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문헌으로는 조선후기 정조 대왕 때 규장각의 일기인 『내각일력』에서 나온다. 1796년(정조 20년) 2월 4일자에 중화절(中和節)에 대한 기록이다. 중화절은 중국의 풍습인데, 신하에게 농서를 받고 중화척(中和尺)을 나누어줌으로써 농업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이는 생업이 농업이며 나라의 기본 틀이기를 강조하는 중요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796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규장각에는 철로 만든 중화척을 내리고 근신(近臣)에게는 낙죽척(烙竹尺)을 각각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자에는 1구가 5자인 ‘어제중화척오언율시(御製中和尺五言律詩)’가 있다고 한다. 이 문헌에 따르면 낙죽이 물품에 적용된 사례로 낙죽이 있었다는 근거이다. 또한 왕이 하사한 물품이라면 특품 중 하나였다는 소리인데 이러한 말만큼 그 이전의 시기부터 낙죽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쓰였으며 대단한 기술 보유자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는 낙죽 기법을 쓰며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고 또한 알려진 물품도 없었다. 하지만 낙죽의 기법은 목공기물에 이용되는 다른 목재들을 인두로 지지 나뭇결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거나, 다른 가구에 디자인하며 꾸미는 기법만이 널리 쓰였으며 즉, 목공 기물에는 낙화의 기법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본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상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낙화변증설」에 따르면 ‘순조 말엽에 대방주(帶方州) 출신인 박창규(朴昌圭)라는 사람이 조각과 함께 낙죽을 매우 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박창규는 낙죽에 능하고 조각에도 특출한 재능이 있어 경재(京宰) 문하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특색을 가진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박창규는 낙죽과 조각에 재능이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으나 그가 낙죽을 처음으로 들여온 인물인지 전승을 받아서 맥을 이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박창규의 출생 연도를 따져보았을 때 낙죽의 창시자라고 보기 어렵다. 1796년에 낙죽척을 하사 하였다는 기록을 보아 그 이전부터 낙죽이 있었고 또한 왕실에 공납하려면 기술 또한 일정 이상의 기술이 널리 성행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박창규는 숯 대신 아도²⁵⁾(砥刀)로써 대나무를 붉게 지지 낙화를 그렸는데, 성글

25) 인두의 옛 명칭

고 알참과 질고 열음이 탁월하여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재주라 일컬었으며, 청나라의 무풍자보다 우수하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죽편뿐 아니라 종이에도 화조(花鳥)와 영모(翎毛 : 새와 짐승)를 낙화하여 그 유품들은 현재까지도 전한다.²⁶⁾

그 후, 아쉽게도 박창규의 후진들은 기법이나 재능이 스승을 능가할 수 없었으며, 또 도락은 아주 어려워서 낙판(烙版)을 만든 뒤 기물에 신속하게 낙인을 하여 무늬를 만들었다. 낙판에 의해 찍힌 무늬들은 언뜻 도락처럼 보이거나, 판이 세밀하지 못하므로 찍힌 무늬들은 정교하지 않았고 섬세한 변화가 없는 도식화된 무늬가 되었다.²⁷⁾

낙화의 기법은 농담의 차이이나 숙련도에 따라 나타나는 섬세한 변화는 후대에 이르러 나타내지 못하게 되며 낙화 기법의 전승이 힘들어 점차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낙죽의 기법이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계층만이 사군자를 그리며 자연과 벗하며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던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의의가 있다. 낙죽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서민들에게도 낙화의 기법으로 표현한 그림 또는 대나무에 그림을 그려낸 낙죽 공예품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근할 수 있는 대나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낙죽의 기법이 표현된 물건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용화되었고 낙죽의 기법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녹아들어 지금까지 전승되어지고 있다.

26) <http://blog.naver.com/pjtiy47j4/140094825589>

27)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낙죽'

제 3절 낙죽 도구에 대한 고찰

1. 전통 인두류

인두는 무엇을 지지거나 어떠한 것에 열을 전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예로부터 옷을 다림질할 때 많이 사용하였으며,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도 쓰였다. 또한 무언가를 낙인하기 위해서도 쓰였는데, 낙죽의 기법은 바로 기물에 낙인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인두는 낙죽 기법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구로서 작가나 장인들은 각자에 알맞은 인두를 제작해 작품을 만들어낸다.

낙죽의 인두는 앵무새의 부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보통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기도 하다. 사용자에 따라 무게중심을 잡는 방법이 다르고 잡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덧붙여 낙죽의 인두와 낙화의 인두는 모양이 각기 다르다. 낙화에 쓰이는 인두는 무게의 중심인 몸통 부분이 작고 얇으며 목 부분은 매우 길다. 또 크기는 평균 30cm 이내이고 넓이는 1~3cm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글씨에 쓰이는 인두는 글씨를 세밀하게 쓸 수 있도록 끝이 뾰족하다. 이에 비하여 그림을 그리는 인두는 끝부분이 둥글기도 하며 글씨를 새기는 인두보다 1.5배에서 2배로 크다.

인두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뉜다. 첫째, 글을 놓는 인두, 둘째, 그림을 놓는 넓은 인두, 셋째, 칼 인두 넷째, 도움 인두 등이 대표적이다. (표 4-1 참조)

먼저 칼 인두는 대나무의 원형 통에 수직으로 일정하게 직선을 그리는 역할로 쓰인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형에 쉽게 자로 긁는 것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인두로 일반적으로 낙죽의 문양에서 칸을 나눌 때 쓰인다.

도움 인두는 낙죽 과정에서 자세 잡기 힘든 곳에 낙을 시문할 때 넓은 부위를 작업할 수 있다. 낙을 시문할 대나무 부위가 길어서 자세 잡기가 힘들다면 대나무를 고정하고 두 손을 이용한다.

< 표 4-1 > 전통 인두 종류

명 칭	도 구	설 명
글을 놓는 인두		낙죽장도(烙竹裝刀)의 대나무 표면에 쓰이는 글씨를 놓는 인두이다. 맨 왼쪽부터 글씨의 크기에 따라 끝의 뾰족함이 다르다.
		끝을 확대하여 첨부하였다.
그림 놓는 넓은 인두		그림을 놓는 인두는 종류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두도 첨부하였다.
		위의 사진과 다르게 크기가 다른 인두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칼 인두		칼 인두는 대나무 원통에서 직선을 그리거나 보다 빠르게 선을 그을릴 수 있도록 제작된 인두이다.
		칼 인두의 쓰임 과정이다.

< 표 4-2 > 전통 인두 종류 28)29)

명 칭	도 구	설 명
다 리 미 인두		넓은 면적을 그리거나 같은 농도로 넓게 낙을 시문할 때 쓰인다.
		다리미 인두 앞 면적의 모습이다.
		다리미 인두 옆 면적의 모습이다.
		외적인 면은 다르지 않지만, 낙죽용으로만 쓰였던 유물이 아닌 다림질용의 다리미 인두를 첨부해 보았다.
도움 인두		낙죽 낙화에서 자세 잡기가 어려운 곳에 낙을 시문할 때 쓰인다.
		인두 머리 양두 부분에 끼워 놓고 사용한다.
		도움 인두로 낙화를 하는 과정이다.

28)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ide.asp?id=weaja&folder=23&list_id=11857300

29) <http://artminhwa.com>

2. 현대 인두, 버닝 (Burning) 펜

현대의 인두는 전통 인두와 다르게 어디서든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숯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하여 작업의 진행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해 주며, 인두의 끝이 숯으로 녹을 걱정도 없다. 또한 숯에서 나는 연기로 작업을 방해받을 염려도 없다. 또 휴대하기에 좋으며 전기만 공급된다면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전통 인두보다 가벼워 낙죽 자세를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 온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일정 시간 이상 작업할 수 있어 작업 시간을 단축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 때문에 작업의 폭이 넓으며 어떠한 제품이든 제한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도가 항상 일정하여 농담 차이를 일정하게 줄 수밖에 없어 작품의 표현성이 반감되는 단점도 있다. 또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것도 큰 단점이다. 전기인두의 크기는 제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모양도 다르므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인두와 다르게 현대의 인두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어디서든지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현대 인두는 전기인두라고 칭하며 숯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기의 도움으로 인두에 열을 내어 작업의 진행 속도를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작업시간대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전통 인두의 단점인 숯으로 인한 인두의 끝이 녹음을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숯의 연기로 인해 사용자가 작업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 구성으로는 전기인두와 전기인두를 잠시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다,

< 표 5 > 현대 인두 종류 30)31)

명 칭	도 구	설 명
버닝펜		버닝펜슬이라고 불리며 전압기를 이용하여 끝부분에 열이 가해져 우드 버닝을 한다.
		열이 가해진 상태이다.
		구성 요소이다.
받침대		작업 중간이나 끝에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열이 전도가 안 되도록 보관 하는 것이다.
일자형 전기 인두		전기인두는 100w이하는 열이 약해서 대나무에 적합하지 않아 100w 인두 끝을 ㄱ자로 구부려서 사용한다.
하코 인두기		버닝기로 온도 조절해가며 대나무와 나무에 버닝을 한다.
일자형 인두기 히터		100W짜리를 사용하며 잘 끊어져서 여분으로 챙겨 놓아야 한다.

30) <http://lambition.tistory.com105>

31) <http://storefarm.naver.com/jyardmall/products/723396235?NaPm>

3. 화로(火爐)

화로는 숯불을 담아 음식물을 데우거나 어떠한 것을 끓이는데 쓰거나 또는 부엌에서 아궁이를 끓일 때 불씨를 보관하거나 키우려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겨울에 방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용도로도 쓰였으며, 옷을 다릴 때 인두 또는 다리미를 데울 때 쓰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용도와 다르게 낙죽에서는 인두를 데워 작품을 만들어낼 때 쓰인다.

낙죽에서 인두와 화로는 낙을 놓는 과정에 있어서 붓과 물감의 관계이며 붓으로 생각했던 바를 종이에 표현하듯 인두를 이용하여 원하던 바를 대나무에 표현한다. 물감이 있어야 붓이 제 빛을 바라듯 낙죽이란 큰 작품에 있어서 화로는 인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불로 달궈진 숯을 화로에 담아 인두를 달구고 그렇게 달궈진 인두를 이용하여 낙을 놓아 대나무가 제 빛을 발하게 한다.

물론 현대 낙죽에서 화로는 불편하고 작업의 시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숯으로 인한 연기는 작업장의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을 담고 인두에 열을 전해주는 화로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숯을 이용하는 화로가 간편하게 전기로 대체되었다.

화로의 크기는 높이 20cm, 지름은 40cm이며, 쇠로 틀을 잡고 안에는 황토로 채워져 있다. 황토는 숯불의 온도를 안정되게 해준다. 낙죽 기법을 오래하기 위해 황토 부분에 공기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 공기구멍은 숯불에 활력을 주며 작업의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공기구멍의 크기는 3~4cm이며 풍구와 함께 사용한다.

< 표 6 > 전통 화로와 전기 화로

명 칭	도 구	설 명
전통 화로		<p>오래전부터 쓰인 낙죽용 화로이다. 낙죽 화로는 걸은 쇠로 지지대 역할을 하며 안의 소재는 황토로 열의 보존을 위해 만들어 졌다.</p>
		<p>화로 옆면의 모습이다.</p>
전기 화로		<p>숯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열에너지를 인두에 열을 가하는 원리이다.</p>
		<p>다른 측면에서 보는 전기화로이다.</p>
		<p>세세하게 짚어 놓은 전기화로이다.</p>

4. 다듬기 칼과 낙죽 준비 물품

대나무 공예에 있어서 재료를 채취하거나 잔가지를 다듬고 잘라진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과 톱, 낫, 도끼, 대나무 마디에 흠을 팔 수 있는 거도, 그리고 대나무 표면에 흠을 팔 수 있는 현대 드릴과 같은 용도인 활비비 등이 있다.

먼저 ‘표피 칼’은 대나무 표면을 가다듬는데 쓰인다. 대나무 표면을 가다듬어야 반듯하고 직선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또한 잔가지들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잔가지가 있다면 낙죽 자세도 틀어질뿐더러 낙죽 작업이 복잡해진다.

이와 비슷한 용구로는 다듬 낫이 있다. 다듬 낫은 대나무 채취 후 잔가지와 잔뿌리를 제거하는 용도인데, 보통은 잔뿌리를 제거하여 뿌리의 모양을 살리거나 예쁘게 다듬어 원형으로 만든다.

인두 닭개는 낙죽 과정에서 인두로 낙을 놓으면서 인두에 묻은 대나무진이나 재를 닦는 필수 도구이다. 벧짚으로 새끼를 꼬아 대나무의 직경이 1.5cm, 길이 30cm가 되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지그재그로 엮어 만든다. 현대 목공예에서 쓰이는 사포 800번 정도의 마모성이 있다.

대톱과 대줄은 대나무라는 재료만 쓰이는 용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톱, 대줄의 ‘대’는 재료 앞 글자를 따서 명명했다고 본다, 대톱은 다른 톱들과 톱니의 간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톱니가 크다면 자르게 되는 대나무 표면 섬유질이 망가진다. 톱니가 적은 경우는 곱게 잘 잘라진다.

한편 대나무 교정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목공예들과 다르게 대나무 공예에만 쓰이는 특별한 도구가 있다. 대나무 교정 틀은 길이 50~60cm의 나무를 중간에 7~8cm 사선으로 흠을 판다. 낙죽에 쓸 대나무 중 휘어진 것을 약한 불로 쪼면 다음 사선으로 만든 흠에 끼어 흰 곳을 바로 잡는다.

대나무 교정틀은 참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가 쓰이지만 보통 느티나무를 선호한다. 참나무는 오래되면 비틀어져 도구의 재료로써 힘들다. 대나무 교정틀은 길이가 50~60cm의 나무를 중간에 7~8cm를 사선으로 흠을 파내어 만든 도구이다. 낙죽에 쓸 대나무 중 휘어진 것을 약한 불로 쪼면 다음 사선으로 만든 흠에 끼어 흰 곳을 바로 잡는다.

< 표 7 > 다듬기 칼

명 칭	도 구	설 명
표피 칼		대나무 표면을 가다듬는 칼이다.
다듬낫		대나무 채취 후 잔가지나 잔뿌리를 제거하는 용도이다.
거(巨) 톱		대나무 마디를 절단하여 원하는 부위에 낙죽 할 수 있도록 쓰인다.
대 줄		대나무 마디를 절단한 후 끝부분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용도이다.
대 톱		대나무 안의 마디 사이에 홈을 파기 위한 용도이다.
활비비와 송곳		대나무 표면에 홈을 파는 현대 드릴과 같은 용도이다.

< 표 8 > 기타 도구

명 칭	도 구	설 명
딱 개		낙죽 작업을 진행하며 인두에 대나무 진액이 묻어나와 진행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인두에 묻은 진액을 닦는 용도이다. 나무와 짚, 풀, 새끼로 감아서 제작한다.
교정대		올곧지 못한 대나무에 열처리를 하여 반듯하게 잡아주는 용도이다.
풍구, 풍차		낙죽 화덕 안에 숯에 바람을 넣어 열을 더해 주는 용도이다.
		대형 풍구이다.
찜통		대나무 채취 후 진액을 빼며 낙죽하기 위해 삶는 통이다.

제 4절 낙죽 문양의 현대 기법 고찰

1. 현대 낙화 버닝

낙화와 낙죽은 숯불로 인두를 달구어 대나무나 나무 또는 종이에 정성을 다하여 각인을 하여 작가의 뜻을 새기는 작업이다. 하지만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낙죽이나 낙화가 지닌 고유한 의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현대의 기술 중 인두로 각인을 새기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버닝(burning)’ 이라고 한다. 동일한 말로는 ‘포커워크(pokerwork)’ 라고 한다. 버닝이란 우리나라 전통 기법인 낙화, 낙죽의 의미와 같이 다양한 나무나 종이, 가죽, 대나무, 한지 등에 버닝 펜(전열 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재료의 표면을 태우거나 조각한 작품 위를 태우며 원하는 면, 선, 점을 이어가며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을 말한다. 버닝 공정에는 전기인두, 버닝 펜, 레이저 버닝기 등이 쓰인다.

요즘은 버닝의 개념이 더 세분화되어 나무 위에다 펼치는 것을 우드 버닝(Wood Burning)이라 하기도 한다. 사실 우드 버닝은 현대인에게는 낙죽, 낙화보다 보다 더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다. 우드 버닝의 기법은 외국에서 쓰여온 것으로 파이로그래피(pyrography) 범주 중의 하나이다. 파이로그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불을 뜻하는 ‘pur’ 와 글쓰기를 뜻하는 ‘graphos’ 의 합성어이다. 파이로그래피는 낙죽, 낙화와 의미상 뜻은 같지만 작업 방식은 틀리다. 파이로그래피는 우드 버닝의 상위 개념이라 해외에서는 우드 버닝이라는 표현보다 디자인, 패턴 등을 나무나 종이, 가죽 등 다양한 표면에 태워 새기는 낙화 기술을 파이로그래피로 총칭한다. 그래서 버닝 작가들은 우드 버닝 아티스트 보단 파이로그래퍼 또는 파이로그래피스트로 불리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에 우드 버닝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하고 낯설 수 있지만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고대 이집트와 아프리카 등지의 많은 문화들에 버닝이 있었다. 초기 인류는 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고, 흔적을 남기는 것만 고수하지 않고 점차 불을 사용하며 기법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작품이 하나씩 나오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중국의 한나라 때 ‘Fire needle Embroidery’ 가 있었으나 작품이 남아 있지 않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빅토리아 왕조 시대(1837~1901)부터 공예에 대한 관심이 커졌

고, 그에 따라 버닝 기법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점차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전열 펜이 발명되었다. 이렇게 공예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쓰이던 포커워크 (pokerwork) 용어에서 파이로그래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그 후 버닝은 장식 예술 시대인 아트데코 시대(art decoratit 1920~1930)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1960년대 다시 나타나 현재의 우드 버닝이자 파이로그래피의 모습으로 많은 지역에서 사랑받는 기법이 되었다.³²⁾



< 그림 19 > 우드 버닝 작업 과정

32) <https://en.wikipedia.org/wiki/Pyrography>

2. 버닝 상품 예시 33)

① 수납장



< 그림 20, 21, 22, 23 > 수납장 버닝

< 그림 20, 21, 22, 23 >을 보면 수납장의 서랍 문에 버닝펜을 이용하여 꽃문양으로 마감했다. < 그림 23 >은 낙엽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였다.

② 시계



< 그림 24 > 시계 버닝

< 그림 24 >에는 벽시계 안쪽을 버닝을 하고 마감처리를 페인트로 하였다.

③ 펜던트



< 그림 25 > 펜던트 버닝

< 그림 25 > 또한 펜던트에 버닝을 함으로써 다양한 색채감이 나온다.

33) <http://blog.naver.com/kkese>



< 그림 26 > 펜 버닝



< 그림 27 > 기타 버닝

< 그림 26 >³⁴⁾을 보면 펜대는 나무소재로 우드 버닝을 하였다. 전통기법인 낙죽은 문양을 많이 넣고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첨가하였지만 낙화, 낙죽이 현대적으로 쓰이는 기법인 버닝에서는 회화적인 요소가 많이 첨가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림 27 >³⁵⁾를 보면 기타의 몸체(body)라고 불리는 부분에 회화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버닝을 한 것이다.

앞서 말한 작품, 상품들을 예시를 들며 낙화, 낙죽이 현대적인 기법 버닝으로 다양하게 응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4) <http://m.blog.naver.com/snowdeer83/10189722987>

3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nowdeer83&logNo=220535397871>

3. 레이저 마킹(Laser Marking)의 기법

1) 레이저 마킹의 정의

현대에 들어와서는 무엇에 문양을 새기는 기술이 매우 다양화되었으며 작업 과정도 빨라졌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를 입력하여 편리하게 새기는 작업 기법들도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레이저(Lase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첫 글자를 따온 약자로 복사 유도 방출을 통한 광 증폭이라는 뜻이며, 빛의 에너지를 집광시켜 높은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가공 분야 중 하나이다.

레이저는 지향성 및 수축성이 뛰어나고 파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등의 물리적인 특징이 있으며, 열 변형이 없고 직접 마킹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응력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아 세밀한 가공에 이용된다. 레이저가 물체를 가공할 때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물체 표면을 태우는 버닝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흔히 레이저 각인으로 불리거나 레이저 마킹(Laser Marking)으로 불린다. 레이저 마킹은 레이저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만든 문양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작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물체의 한 부분에 문양, 그림, 기호 등을 각인, 변색시켜 새기는 기법이다.

레이저 마킹의 기법으로 가공이 가능한 소재는 금속, 플라스틱, 실리콘, 나무, 종이, 가죽, 유리 등으로 나누어지며 소재를 절단하는 레이저 커팅(Laser Cutting) 주변을 어떻게 마킹하는 것에 따라 레이저 각인의 기법이 나뉜다.

2) 레이저 마킹기의 분류되는 종류

- 반도체 레이저 : 마우스 광채, 레이저 프린트, 무대에서의 레이저 등에 쓰인다.
- 야그 레이저(YAG laser) : 의료, 산업용 장비에 쓰인다.
- CO2 레이저 : 일반 레이저 조각기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 그림 28 >이 CO2 레이저이다.



< 그림 28 > CO2 레이저 조각기

4. 레이저 마킹(Laser Marking)의 상품 예시



< 그림 29 > 웨딩 레이저 마킹

< 그림 29 >³⁶⁾은 웨딩사진을 레이저로 마킹한 것인데, 사진 파일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간편하게 작업한 것이다. 이러한 상품을 전통 낙죽의 기법으로 작업한다면 오래 걸릴뿐더러 정교하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한 낙죽에 숙달된 숙련자가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 그림 30 > 호랑이 상표 레이저 마킹



< 그림 31 > 명함 레이저 마킹

< 그림 30 >³⁷⁾은 책상이나 나무 소재로 된 간판에 상표를 타 프로그램들로 디자인하고 마킹한 것이며, < 그림 31 >³⁸⁾은 명함을 레이저 마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품 예시를 보면 낙죽, 낙화의 현대적 기술 레이저 마킹으로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죽과 낙화 작품에서 전통 문양들이 현대 제품들과 결합한다면 한국적인 미를 표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통이 세계에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36) <http://global.rakuten.com/en/store/mokko-ya/item/1501900/>

37)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XbN&articleno=87

3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htong7&>

제 3장 죽장(竹裝) 기법의 사례 분석

제 1절 국내 장인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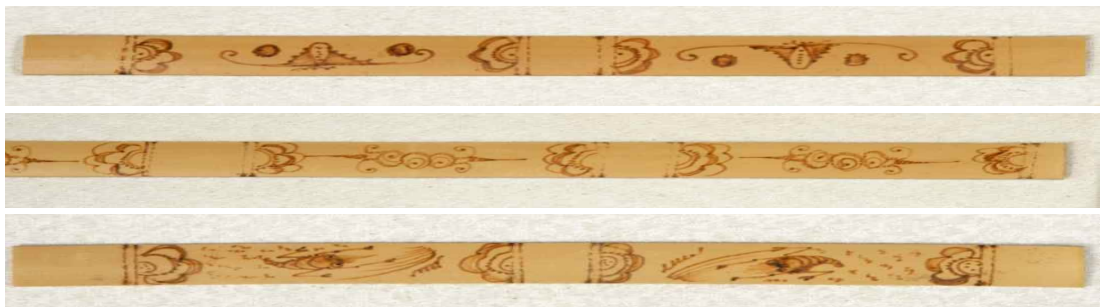
1. 국내 장인

① 국양문(1914~1998) < 그림 32 >³⁹⁾



< 그림 32 > 국양문

< 그림 32 > 국양문은 1987년 1월 5일 중요무형문화재 낙죽장 2대 기능 보유자로 선정되었다. 집안 가업으로 대나무 공예를 전수받아 참빗을 만들었으며 필통, 지팡이, 잣대 등 여러 가지를 제작하였다. 생애 말에는 낙화를 많이 그렸는데, 낙죽 기법의 특출한 솜씨가 회화로 바뀌어 독특한 낙죽 기법을 이루었다. 낙화 기법을 보인 것은 병풍, 가리개, 액자 등이 있다.



< 그림 33 > 낙죽 참빗 등대

39) 김인규 · 김기찬 · 김삼기, 『낙죽장』 민속원, 2008

< 그림 33 >은 참빗 등대로 낙죽의 전통 문양들 나비, 잉어, 구름문 등이 함께 들어가 있다. 한국적인 여러 전통 문양을 그려 넣어 대나무의 멋과 전통미학을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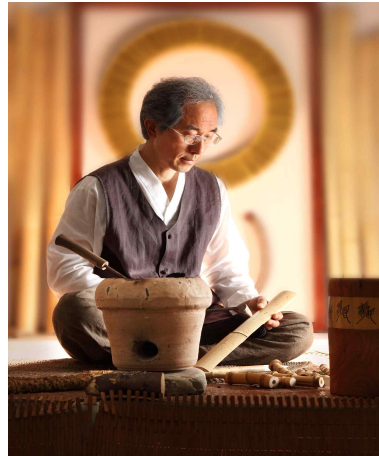


< 그림 34 > 낙죽 작품

< 그림 34 >는 낙화에서 회화적인 기법을 토대로 제작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낙죽만 생각한다면 전통 문양만으로 나타내며 회화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만, 국양문 장인은 낙죽의 기법을 토대로 회화적인 작품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작품에 대한 사진들은 3대 기능 김기찬 장인으로부터 직접 사용허락을 받아 본 논문에 첨부하였다.

② 김 기 찬 < 그림 35 >

김기찬은 1955년 12월 27일 생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이다.



< 그림 35 > 김기찬 장인

김기찬 장인은 낙죽을 배우기 전에 수묵화를 공부하였다. 광주에 국제 이종득선생께 사군자와 산수를 배우고 있었는데 의형제 지간이라 자주 화실에 놀러 오시던 중 하루는 ‘자네가 그림에 기초가 있고 하니 담양에 가서 낙죽을 전수해 보는 것이 어떨겠나?’ 하며 ‘잘되면 내 작품에도 낙죽을 해주소.’ 라며 낙죽을 권유하여 입문하였다. 순천 송광사에서 계심헌이라는 공방과 판매점을 열어 성업을 이뤘으며 활발히 활동하던 중 계심헌에 화재가 나 활동지를 보성 ‘서재필 기념관’으로 옮겨 현재 활동 중이다.

김기찬 작가의 풍채에서는 삶의 도를 깨우친 도인의 느낌이 나며 작품들 또한 여러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작품은 전통 문양들을 낙을 놓아 의미가 심오하다.



< 그림 36 > 낙죽 붓

< 그림 36 >을 보면 곧은 대나무에 구름문의 형상을 띤 전통 문양과 화광동진, 심정필정, 요산요수 등을 전서체로 낙을 놓았다. 대나무의 고운 색과 대추나무의 진한 고동색이 무게감을 준다. 붓과 대의 결합은 예전 조선시대 때 붓을 향유하였던 고위층의 사대부들과 항상 생활에서 용품으로 쓰고 삶을 즐겨왔던 서민들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 여러 계층이 하나임을 표현하고 있다.



< 그림 37 > 심정필정 낙죽 붓

< 그림 37 >은 심정필정 낙죽 붓이다. 큰 사이즈는 40cm의 크기이며 작은 사이즈는 36cm이다. 이 작품은 왕대 뿌리에 심정필정(心正筆正)을 낙죽으로 농담을 조절하여 낙을 놓았다. 각통과 꼭지의 소재는 대추나무로 하고 비단으로 짠 전통 매듭으로 고리를 만들었다. 작품을 보면 장인의 살아왔던 가치관, 올바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보인다.



< 그림 38 > 낙죽 문진

< 그림 38 >의 작품의 재료 구성에는 무게가 있는 대추나무와 박달나무로 받침을 하고 그 위는 대나무와 대나무 뿌리를 이용해 만들었다. 길이는 30~35cm, 높이 17cm의 형태를 갖고 있다. 문진이라 함은 서예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종이, 한지를 좌우에

눌러 놓거나 종이를 반듯하게 피는 역할의 문구 중 하나이다. 문진 재료의 구성 요소의 성립은 무게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게가 있는 나무로 만든다.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할 점은 대나무 재료 특성상 속이 비어 가벼운 단점을 박달나무와 대추나무로 보완한 것이다. 손잡이는 대나무 뿌리로 재료 특성상 뿌리는 비어 있지 않고 질기고 단단하다. 문양은 구름문의 형태와 산의 형태를 낙죽하여 자연과 일체한 모습을 가진다. 또한 앞에서 <그림 37, 38>를 서예 세트로 만들 수 있다.



< 그림 39 > 낙죽 대나무 비녀

< 그림 39 >는 대나무의 원형 즉, 뿌리까지 살리어 비녀를 만들었다. 비녀는 여인의 긴 머리를 다듬어 틀어 올려 풀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소소하게 꾸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비녀는 꽃아 사용하는 자에게 매혹적인 자태와 고상한 품위를 풍기게 했다. 비녀는 예부터 남녀사이에서 가리지 않고 많이 쓰였으나 점차 의미가 변화하며 신분을 나타내는 대에 사용되었다. 김기찬 장인은 소재로만 완성을 짓지 않고 포도 문양을 낙죽하여 비녀만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산의 상징을 추가 하였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김기찬 장인으로부터 직접 사용허락을 받아 본 논문에 첨부하였다.

③ 한상봉 < 그림 40 >

한상봉은 1960년 7월 6일 생으로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에 태어났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낙죽장도장이다.



< 그림 40 > 한상봉 장인

한상봉 장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낙죽장도장 2대 보유자이다. 한상봉 장인은 어렸을 적부터 1대 보유자인 故 한병문 장인에게 그림과 필체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전수받아 왔다. 이러한 교육을 받아 그림과 필체에 대한 이해도와 조예가 깊으며 여러 부분에서 다재다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장인은 낙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며 작품 활동에 있어서 창의적인 물품들도 많다. 또한 필체에 있어서 명필이라 낙죽장도를 전통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 일품이다.



< 그림 41 > 낙죽장도 2011

< 그림 42 > 낙죽장도 故 한병문 작

< 그림 41, 42 >은 낙죽장도라고 불리어진다. 낙죽장도라고 함은 삼국시대의 비수에서 유래됐다고 하며 역사가 깊다. 아랍 지역에서도 칼에 문자를 기록하고 상감을 했

지만 수권의 책을 기록한 것은 전혀 없다.

옛 선조들이 호신이나 총절도로 허리춤과 주머니에 차고 다녔던 칼이다. 이처럼 호신용으로 활용한 칼이지만 낙죽장도의 매력은 칼집 대나무 표면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책을 낙죽장도에 필사하여 필사본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전 세계적으로 무와 문이 함께한 칼은 드물고 유일한 점이다. 칼집에는 대나무를 불에 달군 인두로 한시, 사서삼경과 더불어 선비들이 문장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보았던 『고문진보(古文眞寶)』를 쓰거나 사군자를 새겨 넣어 선비들이 사용한 애호 물품이었다. 또한 일반 장도는 삼국사기부터 천민들이 만들었지만 낙죽장도는 선비들의 사상이 담겨 있어 선비들이 직접 제작하는 장도이다.

낙죽장도는 15cm내외 길이에 7마디 이상의 대나무에 인두로 지져서 쌀알 정도의 크기 1cm 글을 옮겨 곱게 새겨 넣는데 낙죽장도의 무늬는 구름, 산수, 매화, 다람쥐, 왕새우, 포도넝쿨 등을 넣는다고 한다.



<그림 43> 용문양 낙죽 좌장검

<그림 43>은 앉아서 사용한다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좌장검이라고 불리나 평상시 사용하며 일반적인 지팡이의 길이이다. 칼날은 매우 얇고 예리하여 찌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장도의 검 집에 용문양이 낙죽 되어 있어 더욱 권위를 높이게 부각 시켰다.



< 그림 44 > 낙죽장도 사인검

< 그림 44 >에서 보이는 건 사인검(四寅劍)이다. 사인검은 12간지 중 호랑이 인(寅)이 4번 겹치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단조하였다. 이런 호랑이 인(寅)이 악한 기운들을 쫓아낸다는 믿음에서 칼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인검은 검신(劍身)의 한 면에 사인검(四寅劍)을 포함한 27자의 한자가 금(金)상

감 되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191개의 별로 된 성좌(星座)가 역시 금상감 되어 있는 보검 중의 보검이다.⁴⁰⁾ < 그림 42 >에서 또한 낙죽을 이용하여 호랑이 인과 귀갑문양이 들어가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 그림 45 > 낙죽장도

< 그림 45 >은 전통 낙죽장도를 재현한 작품이다. 앞서 말한 『고문진보』 <황주 죽루기> 부분의 책을 낙 놓은 작품이다. < 그림 45 >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구열이 얼마나 많았는지 느껴진다.

한상봉 장인은 전통을 재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에 그의 작품들에서 조선시대 선비의 멋과 얼을 볼 수 있다.

4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51195&cid=51293>

④ 이형진(李亨珍) < 그림 46 >

이형진 장인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4호 낙죽장이다.



< 그림 46 > 이형진 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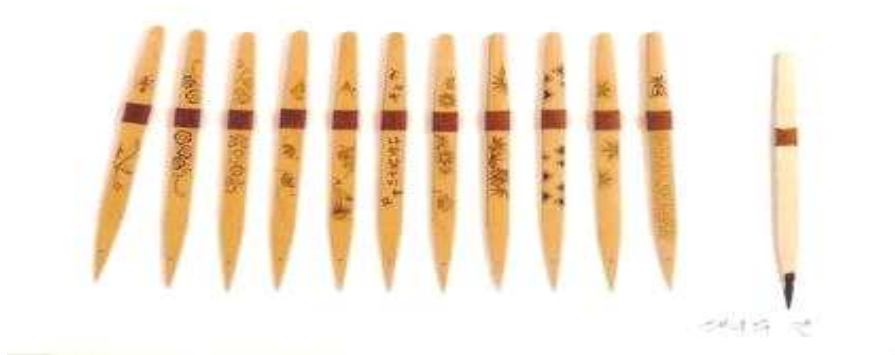
담양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956년 10월 9일에 태어났다. 여타의 죽세공예와 함께 예로부터 담양 지역에서 성행하였으며 최근까지 전승되어 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기능 보유자 낙죽장 이동연(李同連, 1969. 11. 29. 지정)에 이어 1987년 1월에 국양문(鞠良文, 1914. 2. 7 ~ 1998. 11. 30)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이형진 장인은 두 명의 선생님에게 전수를 받아 왔다. 타 장인들과 작가들에 비해 신체적인 아픔이 있어 낙죽 작업 하는데 힘들지만 흔히 말하는 장인 정신으로 극복하며 많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 그림 47 > 낙죽 합죽선

< 그림 47 >을 보면 장인은 합죽선의 뼈대 대 표면에 낙죽을 하였다. 합죽선의 기둥인 끝부분 대 쪽에 전통 문양인 박쥐문과 매화 문양을 넣어 부채가 돋보이게 표현하

였다. 박쥐문은 편복문이라고 불리는데, 편복은 복(福)과 같은 음(音)으로 두 마리의 박쥐형태를 쌍복(雙福)이라 하여 기물이나 조각의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며, 복(福)과 부(富)가 합하여 백체부복(百體富福)이 됨으로 사람들은 편복 무늬를 좋아한다. 그래서 각종 기물에 오복(五福)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편복 다섯 마리를 표현하는 예가 많은데, 오복이란 수(壽), 부(富), 강(康), 덕(德), 명(命)을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복합적 의미를 표현할 때 다섯 마리의 편복을 표현한다.⁴¹⁾ 또한 박쥐의 특징이 장수동물로 알려져 있고 번식이 강하여 부부의 무병장수와 더불어 자식 농사를 기원하기에 안방의 가구에 많이 새겨졌다.



< 그림 48 > 낙죽 펜

< 그림 48 >를 보면 지금의 펜보다는 잉크를 이용하는 만년필과 같다. 문양으로는 소라문, 매화문, 학 문양으로 펜에 낙을 놓았으며 일반적인 펜슬과 다르게 예전에 쓰였던 만년필 모양을 토대로 디자인 하였다.

이형진 장인은 제품 위에 낙죽을 할 때 화려한 낙죽의 방식보다는 간결하거나 또는 소박한 문양으로 문양 하나하나의 의미를 중점으로 두고 있어 여백의미를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이형진 장인으로부터 직접 사용허락을 받아 본 논문에 첨부하였다.

4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17742&cid=50826>

⑤ 조운창(趙雲倉, 1944.2.17.) < 그림 49 >

조운창 장인은 전라남도 문화재 제44호 낙죽장이다.



< 그림 49 > 조운창 장인

조운창은 1978년부터 대나무와 함께 하면서 타고난 손재주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낙죽과 죽각(竹刻)을 터득하였는데, 당시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기능보유자인 이동연과 국양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1981년부터 40여회에 걸쳐 각종 대회에 입상하였고, 노동부로부터 기능전승자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 경지에 오르면서 선이 굵고 회화적인 면이 강한 낙죽의 세계를 이룩하였다. 2009년 3월 20일 이형진과 함께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⁴²⁾



< 그림 50 > 낙죽 화살통

< 그림 50 >은 사슴과 용 무늬의 낙죽 화살통이다. 타 장인들과 다르게 조운창 장인의 낙죽기법은 작품마다 선이 진하며, 전통 문양의 소박함으로 낙을 놓는 것보다는

42) https://www.kcdf.kr/village/vm/vm1/master/view.do?mas_id

그림의 숨씨가 있어 회화적인 낙죽 기법을 보인다. < 그림 49 >의 대나무 마디마다 문양을 보면, 한 폭의 자연에 뛰어노는 동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볼 수 있다. 작품에 자연을 표현하고자 하는 장인의 의도가 보이며 자연적인 소재 안에서 자연 속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 그림 51 > 낙죽 화살통-1

마지막으로 < 그림 51 >을 보면 매화, 난, 국화, 학, 잉어 등 사군자와 함께 낙을 놓았다. 사군자는 선비가 지닌 지조절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낙죽이나 우리나라의 한국화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문양들이기도 하여 낙죽 문양의 큰 틀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낙죽에 있어서 화려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소박하고 절제된 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조운창 장인 특유의 회화적인 낙죽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나타내었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조운창 장인으로부터 직접 사용허락을 받아 본 논문에 첨부하였다.

2. 본 논문의 연구자 작품 연구

1. 제작 배경 및 의도

대나무라는 재료는 삼국시대부터 각기 생활용품에 많이 쓰였으며 재료의 특성상 타 나무에 비해 성장기간이 짧아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대나무는 보급이 빨라 서민들에게도 애용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친밀한 나무였다. 이렇게 대나무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친한 나무이기에 대나무를 이용한 디자인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것이나 소유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인하여 낙인이 발달하였고 그 중 대나무 재료를 이용한 공예기법 큰 틀 안에서 낙죽이 점차 발달을 해왔다. 하지만 낙죽은 대나무 공예 기법 중에서 숙련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작품의 가치도 달라진다. 무엇이든 빠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시대에 들어서 낙죽은 대량생산이 힘들기에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오늘날에는 전통 예술의 한 분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이란 이전 시대의 산물로 잊히고 버려져야 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디자인이나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의 창고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전통을 미래형 산업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의 추세를 볼 때 낙죽 기법은 더 큰 발전을 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만의 가치 있는 유산이다. 특히 낙죽기법은 기술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형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디자인 산업에서 역할과 발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낙죽장도장 이수자로 장도(粧刀)뿐만 아니라 낙죽에 대해서도 이수를 받고 전수하고 있는데,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낙죽을 응용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에 연계하여 제품디자이너들과 함께 낙죽의 현대화를 연구한 결과 낙죽을 미래형 산업으로 인식하며 현대의 기술을 낙죽으로 응용하고 지속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인과 방법으로 확대해 보았으며, 낙죽을 활용하여 현대 라이프스타일에서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하였고,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디자이너와 함께 조명등, 연필케이스, 휴대용 빗이나 나이프 등등을 제작하였다.

2. 작품설명

① 스탠드 조명등 1

Title : 스탠드 조명등 1

Material : 신의대, 먹감나무, 소뼈, LED, 한지, 세라믹

Size : 31 × 15.5 × H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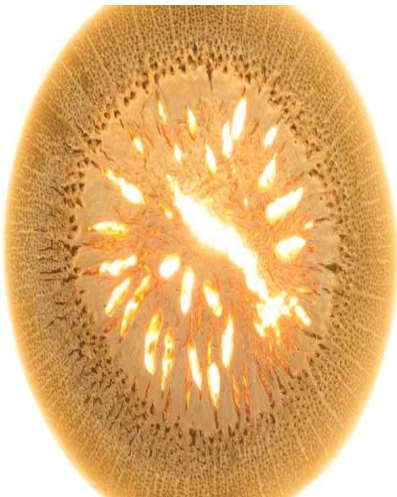
< 작품 1 > 스탠드 조명등 1

< 작품 1 >은 2014 공예 트렌드 페어(2014 Craft Trend Fair)에 출품한 것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이 함께 지원한 2015 이수자 전승 활용 지원 사업으로 리슨 커뮤니케이션(Listen Communication) 사의 김상윤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스탠드 조명등 1’의 작품은 조용한 밤에 보름달과 배꽃이 겹쳐지며 꽃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형상한 것이다. 대나무 왕대와 시누대를 이용하여 기본 틀을 잡았으며 먹감나무를 이용하여 윗부분을 마감하였고, 밀은 도자 소재를 이용하여 받침대를 만들었지만 제작과정이 복잡하여 다른 재료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 빛을 자연스럽게 내는 부분은 왕대의 마디이며 햇빛에 틈이 벌어지도록 한 두 달 건조하였다. 뒷부분은 은은하게 빛을 뿜낼 수 있도록 한지를 덧붙여서 제작하였다. 중간 부분 왕대 마디에 연속되는 패턴으로 연꽃 문양을 낙을 시문했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왕대마다 갈라진 부분이 달라서 빛을 내는 부분이 달라 흥미로웠다.

세부적인 모습

< 작품 1 > 스탠드 조명등 1 43)



< 작품 1-1 > 스탠드 조명등 1의 세부적인 모습

43) <http://iida55.blog.me/220215579532>

② 스탠드 조명등 2

Title : 스탠드 조명등 2

Material : 대나무 합판, 화강암, 먹감나무, 소뼈, 세라믹, LED

Size : 56.5 × 7.5 × H 44.5cm



< 작품 2 > 스탠드 조명등 2

< 작품 2 >는 2014 공예 트렌드 페어(2014 Craft Trend Fair)에 전시를 했던 작품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이 함께 지원한 2015 이수자 전승 활용 지원 사업으로 리슨 커뮤니케이션(Listen Communication) 사의 김상윤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스탠드 조명등 2’에서는 강하고 굳센 바람에도 유유히 흔들리며 날리는 보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몸통의 소재는 대나무 합판을 이용하여 열처리를 했다. 직선을 곡선으로 보리의 모양을 형상화 하였으며 LED 조명을 끝부분에 설치하여 스탠드 조명의 형식으로 제작했다. 낙죽이 들어간 부분은 LED 조명 바로 윗부분으로 바둑판 모양을 형상화하여 조명의 윗부분에 여백의미를 표현하여 낙을 시문했다.

세부적인 모습

< 작품 2 > 스탠드 조명등 2 44)



< 작품 2-1 > 스탠드 조명등 2 세부적인 모습

44) <http://iida55.blog.me/220179944273>

③ 스탠드 조명등 3

Title : 스탠드 조명등 3

Material : 대나무 합판, 세라믹, LED

Size : 54 × 12 × H 4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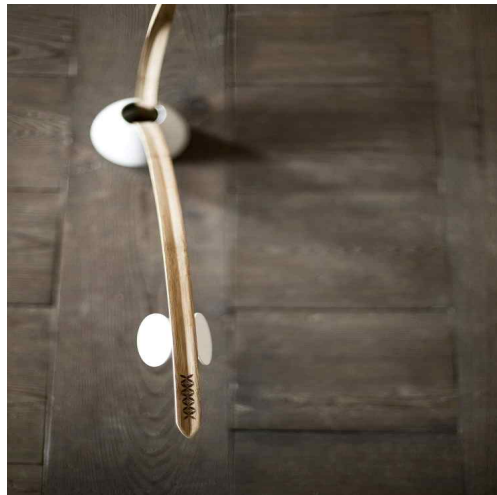
< 작품 3 > 스탠드 조명등 3

< 작품 3 >은 2014 공예 트렌드 페어(2014 Craft Trend Fair)에 전시하였으며,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이 함께 지원한 2015 이수자 전승 활용 지원 사업으로 리슨 커뮤니케이션(Listen Communication) 사의 김상윤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 작품 3 >은 방에 놓인 난초가 달을 낚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조월경운(釣月耕雲)을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몸통의 소재는 대나무의 합판을 열처리하여 곡선으로 휘었으며 끝부분은 나이프로 다듬어 난초 모양의 형상을 표현했다. 밑 부분은 도자 작가 이재성 님과 협업했다. 난초의 잎을 형상화한 부분에 낙을 시문하였는데, 난초의 잎맥을 따라 그리기보다는 알파벳 x자를 문양으로 형상화하여 리본의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세부적인 모습

< 작품 3 > 스탠드 조명등 3 45)



< 작품 3-1 > 스탠드 조명등 3 세부적인 모습

45) <http://iida55.blog.me/220215555551>

④ 연필케이스

Title : 연필 케이스(pencil case)

Material : 송대, 먹감나무, 소뼈

Size : 3 x 15 cm



< 작품 4 > 연필 케이스

< 작품 4 >는 이수자 전승 활용 지원 사업 ‘결’ 작품으로 강주연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연필을 사용하다 보면 몽당연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원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의미이며, 또한 이전 1970~80년대에 볼펜에 몽당연필을 끼어서 사용하였던 연필 케이스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이즈는 대나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된 재료는 송대의 뿌리 부분이며 마감처리는 소뼈와 먹감나무를 사용했다. 낙죽의 문양은 낙죽장도에서의 매화 문양을 전통 방식으로 낙을 놓아 제작했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 연필의 크기에 따라 작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서 개성을 가진 점이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다량으로 생산하기 힘들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⑤ 편평한 어울림

Title : 편평한 어울림

Material : 송대, 대추나무, 특수강철

Size : 6 x 12 x 1 cm, 4.5 x 14 x 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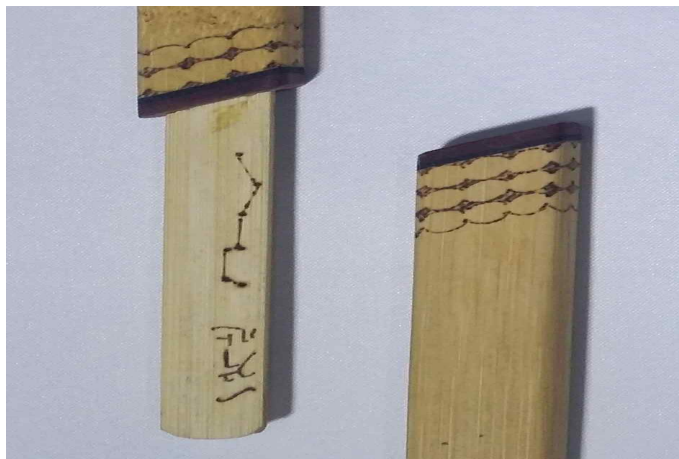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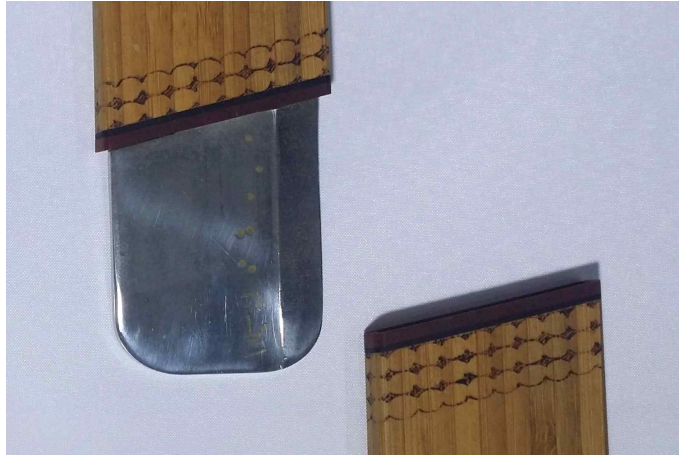


< 작품 5 > 편평한 어울림

< 작품 5 >는 2013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진행한 이수자 공모 사업으로 임태희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휴대용 나이프, 빗, 페이퍼 나이프와 같은 문화상품을 제작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이 현대적이면서도 문화재가 아닌 상용 용품들로 이 제품들을 디자인 하였다. 전반적으로 휴대용 나이프라는 위험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선형과 얇으면서도 편평한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사용자가 되도록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제품의 목적이었다.

낙죽의 문양은 전반적으로 낙죽장도에서 쓰이는 매화의 문양을 바탕으로 손잡이에 낙을 놓았으며 맨 오른쪽의 문양은 북두칠성과 일편심의 조화로 온전한 마음을 갖자는 것의 의미로 디자인했다.

세부적인 모습



< 작품 5-1 > 편평한 어울림 세부적인 모습

⑥ 낙죽 페이퍼 나이프

Title : 페이퍼 나이프(paper knife)

Material : 솜대

size : 3 x 14 cm ~ 4 x 16cm



< 작품 6 > 낙죽 페이퍼 나이프

< 작품 6 >은 ‘빗치개’ 유물의 형태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했다. 페이퍼 나이프는 유럽에서 봉함된 편지를 가능한 뜯기 쉬우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옛날만큼 편지를 자주 보내지는 않지만, 손 편지에 대한 귀중함을 다루는 도구라 생각하고 제작한 것이다.

문양은 다수의 전통 문양을 패턴화시켜 낙을 놓았으며 태극 문양부터 호전문, 연화, 난초, 잉어, 매화, 포도, 봉황, 수복문, 매화, 표주박의 모양 등으로 낙을 시문했다.

세부적인 모습



< 작품 6-1 > 낙죽 페이퍼 나이프 세부적인 모습

제 4장 결론

현대는 누가 더 빠르게 진화하는가를 경쟁하는 것 같다. 알파고(AI)와 인간의 대결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SF영화가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이다. 그래서 전통은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만 남고 박물관 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예기술에 식상한 사람들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자도 전통 공예를 전승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전통 공예의 현대적 재해석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실용 공예를 실천하고 전통 기술의 보존과 발전을 공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에서는 우리 민족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왔던 대나무를 활용한 흔적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전통 공예 기법들 또한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담양의 공물로 오죽을 꺾고 토산물로 신의대와 왕대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 조선 초부터 대나무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의 대나무는 현대의 플라스틱 재료 못지않게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데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나무와 관련된 많은 기법들이 발달되었을 것이고, 그 중 하나인 낙죽 또한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르고 간편함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전통 기법의 하나인 낙죽은 숙련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수작업이란 특성상 과정이 복잡해 현대의 쉽고 빠른 대량 생산품들에 의해 그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작품들은 섬세한 표현연출이 가능하고 작가의 생각을 옳이 반영할 수 있고 작품 하나하나가 특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중적인 상품으로는 양산이 힘들어 다수의 수요층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진다. 하지만 낙죽은 우리에게 무형의 유산이며 소중한 가치이기에 현대에서 낙죽이 유물이라는 유형의 가치로 끝나지 않고 전수받고 이수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도 잊혀져가는 낙죽이라는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문화 상품들을 디자인 개발과 제작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 기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 기술로 상품에 낙죽 기법을 응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낙죽 기법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낙죽이라는 것은 본디 문양을 대나무 표면에 태워서 남기는 것이다. 이전부터 대나무를 이용한 제작은 엮고 짜는 기법 외에도 낙죽과 같은 기법이 있었는데, 이는 문양과 함께 발전해왔다. 인간의 공예에 대한 탐구는 재료의 탐구와 제작 방식의 변화에도 발전이 있었지만 응용미술로서의 다양한 디자인의 발전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전통적 낙죽 기법과 모던한 패턴이 조화를 이룬다면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은 우리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현재의 공예문화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고유의 낙죽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전통기법으로서의 존재감에서 벗어나 서양 침실에서 사용되는 간접조명이나 재료의 감성과 멋진 디자인으로 등산용의 나이프로도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어 한국적인 미를 세계에 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나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제품은 무궁무진하기에 대나무는 황금재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재료에는 대나무가 많이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다. 대나무 함판에 프린트를 입히는 것과 달리 전통기법인 낙죽을 현대 기법으로 응용한 레이저마킹을 하게 된다면, 규격화 제품으로 양산이 가능해져 현대와 전통이 융합할 수 있어 문화상품의 디자인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낙죽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활발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바로 시장에 투입될 수 없어 아직 전통의 기법으로만 머물러 있다.

전통 기법으로 남아 있는 낙죽의 공예 기술은 에코환경차원에서 재료의 우수성으로 계속 응용 연구될 것이다. 또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공예 콘텐츠를 3D 프린터로 시뮬레이션 하여 현대적인 제품 디자이너와 전통의 기술적인 제작자가 다양한 창작의 형태를 시도한다면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방법도 응용되리라 본다. 대나무의 물리적 속성을 더 이해하고 그 위에 창의적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레이저 마킹을 사용한다면 인간과 기계의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선진 공예 기술도 이루어지리라 본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

- 김기찬·김인규·김삼기 저, 『낙죽장』, 민속원, 2008
 이재필, 임승범, 이재원, 박원모 저 『장도장』, 민속원, 2006
 김종태 저 『한국 수공예 미술』, 예경산업사, 1991
 임옥수·이채원 저, 『백동연죽장』, 민속원 2006
 임영주 저, 『韓國紋樣史』, 미진사, 1983
 임영주 저,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9
 허균 저, 『전통 문양』, 대원사, 2010
 권상오, 남천균, 노은희, 박종화 저, 『공예 재료와 기법』, 태학원, 1999
 이규경 저, 『오주연문장전산고』, 동국문화사, 1958
 최남선 저, 『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편집부 저,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오병수, 『전통문화』, 월간전통문화사 1985.06

< 국내 학위 논문 >

- 김진열, 「담양지역 죽세공예품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정연오, 「한국 목공예에 나타난 대나무 가식방법에 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주인택, 「담양 죽세공예의 발달과 채상」,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지은, 「담양 지역 죽세공품 제작기술의 전승과 변화 : 수북면 두정리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조승현, 「담양 죽세공업의 발전과 지역적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9
 채여진, 「민화의 지역 특성 연구 : 호남 지역 민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2009

< 국내 학술지 >

- 우동구 고경옥, 「대나무 재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 포럼, 2011

< 비문헌 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양’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비 우’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달 월’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 나 무’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 인 검’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 쥐 문’
<http://terms.naver.com/entry.nhn>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낙 죽’
<http://blog.naver.com/rokmc9378/60153086182>
<http://artminhwa.com>
<http://blog.naver.com/kkese>
<http://m.blog.naver.com/snowdeer83/1018972298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nowdeer83&logNo=220535397871>
<http://global.rakuten.com/en/store/mokko-ya/item/1501900/>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XbN&articleno=8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htong7&>
https://www.kcdf.kr/village/vm/vm1/master/view.do?mas_id
http://www.eurovision.co.kr/kr/technology_laser-metal-welding.php
<https://en.wikipedia.org/wiki/Pyrography>
<http://ida55.blog.me>
<http://www.iha.go.kr/main/index.nihc>